

소셜연금 4면	상속 8면	은퇴연금 14면	교육 19면	City Hiking 29면
62세와 67세 받는 소셜 연금 총액 80세에 같아져	가족 간 불화 없애려면 상속계획 사전 대화 필요	65세에 5만 달러 '즉시 연금' 구입하면 월 296달러	올해 대학 지원자 증가로 합격률 낮을 것	팔팔 흐르는 개울물, 40피트 폭포의 우렁찬 낙하



“저소득층에 소셜연금 더 줘야”

Cover story 메디케어 2028년, 소셜연금 2035년 고갈

미국 사회복지 제도 10년내 대 위기
의회 양당 갑론을박 서로 손가락질
고소득자 중과세, FRA 상향, FICA 증세

미국 6,000여 만 은퇴 시니어들의 목숨줄과 같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 위험에 직면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정치권의 특단적 조치가 없다면 10년 이내에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대수술의 칼을 들이대려고 하지 않고 있다.

막강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은퇴 시니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선거에서 쓰라린 참패를 경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서로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이 ‘가난한 은퇴’ 생활을 상상조차 못하는 중류 또는 상류층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우려가 최근 조 바이든의 지난 2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바이든은 국정연설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연방 부채 증액 협상을 빌미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대폭적인 축소를 주장했다고 밝히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

지고 있다. 공화당이 부채 증액에 합의해 주는 대신 미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야유를 퍼부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은 절대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은 그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말 공화당 의원들에게 절대 삭감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병원 보험(파트 A) 신탁 기금은 2028년 모든 자금을 소진하게 된다. 앞으로 5년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다. 파트 A 신탁기금은 근로 수입의 2.9%(직장인은 고용주와 반반 부담)의 기금으로 대부분 총당된다. 10년 이상 일해 세금을 낸 기록 또는 40 근로 크레딧을 가진 사람은 65세 이상(특정 질병은 65세 미만도 가능) 이상부터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9면에 계속

SSI 음식 공제 없앤다

소셜국, 관보에 방안 공고
현행법, 식품 지원받으면
SSI금액 3분의 1 삭감 지급
4월 17일까지 여론 수렴

웰페어라고 부르는 극빈자 구호 기금 ‘보충안정수입’(SSI) 계산에서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음식을 지원 받아도 SSI가 삭감되지 않는 계획이 공개됐다.

만약 이 계획이 통과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식품을 조달한다고 해도 더 이상 SSI 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지난달 하순 연방 관보에 SSI 지원금 계산 때 일명 ‘현물 지원’(in-kind support) 항목에서 식품 지원비 삭감 항목을 제외시키는 안을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이 공지는 현행법상 공청회 등 여론을 청취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는 누군가 음식이나 거처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SSI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지불된다. 공제 금액은 지불금의 3분의 1이다.

SSI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근로 기록이 있는 영주권 등 합법 신분자 또는 신체 및 시각 장애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연방 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연방정부는 개인 최고 914달러, 부부 1,371달러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생활비가 비싼 주에서는 추가 비용(SSP)이 지급된다. 캘리포니아는 개인 1,133.73달러, 부부 1,927.62달러다.

김정섭 기자
20면에 계속

칼럼

정대용 변호사	20
김연신의 영어 한마디	22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
이정아의 3월 추천 詩 / 수필	26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7
김동희 칼럼	30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nleegallery.com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창립 30주년
서울메디칼그룹

서울메디칼그룹 시니어[♥]

5스타

아나운서 / 트롯 가수
김용필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스템 메디케어 HMO

65세 이상 어르신들!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다면 주치의의 선택 폭이
아주 넓고 빠른 전문의 리퍼럴로 큰 만족을 드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으로 바꾸십시오!

서울메디칼그룹은 많은 대형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0' 코페이, 치과와 침술, 보청기, 안경, 운동 시설 이용,
비 처방 약품, 비상 호출기, 병원 이동시 차량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인 주치의가 가장 많은 메디칼 그룹!
폭넓은 네트워크로 최고 빠른 전문의 리퍼럴 시스템!



메디케어 HMO 주치의는 서울메디칼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웰케어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엔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브랜드 뉴데이 블루실드 헬스넷 스캔 얼라이언트 클레버케어

※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 혜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와 함께
 돌·결혼·동창회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사진 첨부 가능)
 contact@usmetronews.com



연금 받지 않고 사망하면 생존배우자 100% 받아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 계산하기

FRA 이전에 연금 받았다면 FRA 82.5%까지
 이후 받았다면 숨질 당시 금액 전액 지불
 결혼 9개월 넘었다면 생존자 연금 가능

Q 남편이 숨졌다. 그러면 살아
 있는 부인은 죽은 남편이 받
 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데 사
 실인가. 사실이라면 얼마를 받게 되
 나.

A 이를 생존 배우자 연금이라
 고 한다.

우선 숨진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다가 숨졌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
 의 생존자연금(survivors benefit)
 은 숨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연령, 즉
 은퇴 정년(FRA)에 받게 될 연금이
 다. 하지만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했다면 언제 받았느냐가 생존
 자 연금의 기준이 된다.

만약 숨진 배우자가 장애인 소셜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생존자 연금
 은 그가 받던 장애인 소셜연금에 따
 라 결정된다.

그런데 생존자연금 또한 일찍 받으
 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하
 지만 생존자 연금은 FRA 이후에 신
 청한다고 해도 불어나지 않는다.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

생존자 연금이란 근로기록이 있는
 은퇴자가 숨지면 살아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이 생존자 연금은 ▶일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배우자가 죽기전 최소 9개
 월 전에 결혼했다면 받는다.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장애가
 있다면 50세) 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나이에 관계 없이 받
 을 수 있다.

생존자 연금을 60세(장애인은 50
 세)부터 신청해 받는다면 은퇴 정년
 에 받는 금액의 71.5%가 지급된다.

현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고인의 16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자녀양육
 연금’(child-in-care benefit)을 받
 는다. 이 ‘자녀양육 연금’은 앞서 설
 명하는 ‘생존자’ 연금과는 계산법

이다르다.
 생존 배우자가 일을 해 얻은 기록
 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숨진 배우자
 로부터 받는 생존배우자 연금과 비
 교해 더 많은 쪽이 지불된다.

일찍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 존 배우자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 나

일찍 배우자 연금이나 소셜연금을
 신청했다면 줄어든 금액을 받고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었
 고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은퇴 정년
 (FRA)이 넘었다면 최고 금액을 받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영희 씨는 62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었다. 연
 금은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영희 씨가 67세 만기 연령이 된 해에
 영희 씨 남편 철수 씨가 숨졌다. 영
 희 씨는 만기 연령이 됐기 때문에 철
 수 씨가 받는 은퇴 연금의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둘 사이에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된 자녀가
 있고 영희 씨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
 면 이들 자녀들도 생존자 연금을 받
 을 수 있다. 철수 씨의 친자 또는 입
 양자녀, 경우에 따라서는 의붓 자녀
 도 해당된다.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받다가 숨졌다 면

생존 배우자 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언제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았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 숨진 배우자의 연
 금이 클수록 생존배우자 연금 역시
 커진다.

■ 만약 숨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정
 년(FRA) 이전에 은퇴 연금을 신청
 해 받고 있었다면 숨질 당시에 받고
 있던 연금 또는 FRA에 받는 연금의
 82.5% 중 더 높은 금액이 생존배우
 자 연금으로 지급된다.

■ 만약 숨진 배우자가 죽기전 은
 퇴 연금을 FRA이후에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 생존자 연금은 숨진 배우



자가 죽을 당시 받고 있던 연금이 된
 다. 다만 생존자의 나이가 FRA이전
 에 조기 생존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나이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배우자가 죽기전 소셜 연금을 받지 않 았다면

이 또한 FRA 이전에 연금을 받고 있
 었는지, 아니면 FRA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받았는지에 따라 생존배우

자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

FRA 이전에 연금을 받지 않고 숨
 졌다면 생존배우자 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FRA에 받는 연금에 따라
 계산되며 또 생존 연금을 신청하는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 %가
 결정된다.

그런데 숨진 배우자가 FRA가 지났
 는데도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죽
 었다면 생존자 배우자 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숨질 당시 받게 될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생존 배우자
 가 조기 신청하면 연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철수 씨는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68세 나이에 숨졌다. 이
 렇 경우 배우자인 영희 씨는 철수 씨
 가 68세에 받아야 할 소셜 연금으로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을 한다면

60세 이전에 재혼을 한다면 숨진 배
 우자의 소셜 기록으로 받는 생존배
 우자 연금 자격을 박탈 당한다. 하지
 만 60세 이후 재혼을 한다면 숨진 전
 배우자의 연금으로 계속 생존배우
 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이나 숨진 전
 배우자로 인한 생존배우자 연금 또
 는 현재 결혼한 배우자의 기록에 따
 라 받는 배우자 또는 생존배우자 연
 금 중 가장 금액이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 소셜 연금과 생존배우자 연금 을 선택할 수 있나

한쪽을 받다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별한 영희 씨가 60세
 에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영희 씨는 62~70세 어느때라도 영
 희 씨 근로 기록에 의한 소셜 연금으
 로 바꿀 수 있다. 또 영희 씨가 62세
 에 자신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생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받는다.

이런 경우 SSA에 둘중 하나를 받
 는다는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둘중 큰 쪽으로 받게 된
 다. 자세한 문의는 SSA 지역 사무소
 또는 1-800-772-1213.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65세의 큰 선물!!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무료
 상담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플랜

#OG15778

소셜연금

62세와 67세 받는 소셜 연금 총액 80세에 같아져

소셜연금 '손익분기연령' 이해하기

**일찍 받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 될 것
건강 나쁘고 부채 많다면 일찍 신청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매년 8%씩 증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는 은퇴를 앞둔 예비 시니어들의 영원한 과제다. 또 농담삼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줄어든 금액을 일찍 받고 잘 쓰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나중에 큰 돈을 받아 노년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장식할 것이냐가 숙제다. 62세부터는 매년 8%가 늘어나 70세까지 약 65%가 더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정답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 결정을 내리려면 우선 건강요인을 체크해야 한다. 또 부부의 경우 일찍 받다 죽으면 배우자가 그만큼 줄어든 돈을 생존배우자 연금으로 받게 된다. 둘이 받다 한명이 사망하면 수입의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손익분기연령' (break-even age)을 잘 이해한다면 소셜 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익분기연령'이란 적은 금액을 일찍 받기 시작해 계속 누적된 연금과 늦게 신청해 받는 큰 돈을 합친 금액이 동일하게 되는 연령을 말한다.

일찍 적은 금액을 신청해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은 기간동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신청을 최대한 늦췄다가 받으면 큰돈을 받는 대신 그만큼 총 수령 기간이 짧을 것이다. 오랫동안 받은 적은 금액의 총합계와 짧은 동안 큰 돈을 받는 금액의 총합계가 만나는 나이를 '손익분기연령'이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에서 각

자의 '손익분기연령'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소셜연금 수령

잘 알고 있겠지만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는다. 62세 생일을 지나면서부터는 70세까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63세 받을 수도 있고 65세에 신청할 수도 있다. 만기 은퇴 정년(FRA, full retirement age, 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68세 4개월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부 한인들은 소셜 연금을 꼭 62세 또는 67세, 70세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특히 메디케어 가 나오는 65세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소셜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FRA)에 신청해야만 평생 일해 받는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FRA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이고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1958년생은 66세 8개월 등 1년마다 2개월씩 줄어든다.

만약 올해 62세가 되는 1960년생이 생일 맞은 달에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월 소셜 연금은 67세에 받는 금액보다 30%가 줄어든 돈을 평생 받는다.

만약 67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100%를 받게 되고 이 나이가 지나서 신청하면 매년 8%씩 늘어난 금액을 받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찍 신청해 받는다고 해서 꼭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은퇴 정년(FRA) 소셜연금(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연령별 퍼센테이지

출생 연도	은퇴 정년 (NRA)	매년 증가분	62세 신청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1943~54	66세	8%	75%	80%	86 2/3%	93 1/3%	100%	108%	132%		
1955	66세 2개월	8	74 1/6	79 1/6	85 5/9	92 2/9	98 8/9	106 2/3	130 2/3		
1956	66세 4개월	8	73 1/3	78 1/3	84 4/9	91 1/9	97 7/9	105 1/3	129 1/3		
1957	66세 6개월	8	72 1/2	77 1/2	83 1/3	90	96 2/3	104	128		
1958	66세 8개월	8	71 2/3	76 2/3	82 2/9	88 8/9	95 5/9	102 2/3	126 2/3		
1959	66세 10개월	8	70 5/6	75 5/6	81 1/9	87 7/9	94 4/9	101 1/3	125 1/3		
1960 이후	67세	8	70	75	80	86 2/3	93 1/3	100	124		



더 많은 기간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부채가 많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찍 수령하는 것도 좋다.

1943년생 이후 출생자는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매년 8%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손익분기연령 계산하기

예를 들어보자.

올해 62세가 되는 1961년생 철수 씨의 FRA는 67세다.

철수 씨가 2023년 62세에 연금을 신청해 받으면 67세에 받는 금액보다 연금은 30% 줄어든다. 67세에 1,000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다면 700달러만 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똑 같은 조건의 이웃 사는 동갑내기 영희 씨는 5년후 67세에 연금을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매달

1,000달러를 받는다.

첫 5년동안 철수 씨는 매년 8,400달러씩 총 4만 2,000달러를 받게 된다.

반면 영희 씨는 5년동안 받은 돈은 없다. 하지만 영희 씨가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철수 씨보다 매달 300달러를 더 받아 매년 3,600달러를 더 받는다.

그렇다면 영희 씨가 몇살이 되어야 철수 씨가 받아온 금액과 동일해질까.

78세 8개월이 된다면 철수 씨가 받아온 금액 총액과 영희 씨가 받아온 금액 총액이 같아진다. 연수로 11.67년이 지나면 둘의 수령 총액이 같아진다는 말이다.

계산 공식으로는 '4만 2,000달러 ÷ 3,600달러' 가 된다.

철수 씨가 5년간 받은 금액을 영희 씨가 더 받는 금액으로 나누면 11.67이 되므로 이를 67세에 더해서 나온 숫자다.

이때부터 영희 씨는 철수 씨보다 매년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특히 매년 조정되는 생활비 인상률(COLA)까지 계산한다면 둘이 받는 금액 차이는 단순 300달러가 아니라 해가 갈수록 더 커진다.

이 손익분기나이는 수령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또 언제 받기 시작하는 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 만기 은퇴 정년(FRA)은?

일반 은퇴 정년(Normal Retirement Age, NRA)라고 부른다.

1943~1954년생은 66세이며 이후 매년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다.

앞선 예에서 철수 씨와 영희 씨의 FRA에 받는 금액이 2,000달러로 올라간다면 손익 분기나이는 12년이 추가돼 79세가 된다.

또다른 예

철수 씨가 만기 연령 67세 1,800달러를 받는데 62세부터 받으면 30%가 줄어들어 1,260달러를 매달 받는다. 따라서 62~67세 5년간 총 7만 5,600달러를 더 받는다.

그런데 철수 씨가 67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매달 540달러를 추가해 연간 6,480달러를 더 받는다. 이런 비율로 11.67년이 추가돼 78세 8개월에는 수령 총액이 같아진다.

만약 70세까지 미룬다면 대략 월 2,230달러가 된다. 62세부터 받았다면 이론상 70세까지 8년동안 총 12만 960달러를 받는다. 70세에 받으면 매달 970달러, 연 1,1640달러를 더 받게 되므로 손익분기연령은 10.4가 되므로 80세 6개월이면 총 금액이 같아진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메디케어 - 메디칼 무료상담

- ☑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보장
- ☑ 한방 침술 최대 보장
- ☑ 일반 건강용품 (OTC 최대 보장)
- ☑ 고급 보청기 보장

Tel. (213)700.8150 Lic. 0192211

허만진



메디칼 자격, 주택 한 채 자동차 한 대 제외

양로원 입원 후 배우자, 자녀들 산다면 면제 은퇴연금 정기 페이먼트 받으면 재산 제외 기대 생명 이상의 어뉴이티는 비용 환수 대상 순자산 6,000달러 미만의 부동산도 면제

메디칼(Med-Cal)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한인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백만달러' 보험이라며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인들의 주요 관심은 '장기 간병' 메디칼(long term care Medi-cal)이다. 참고로 일반 메디칼과 장기 간병 메디칼은 적용 방법이 나 재산 환수 규정 등이 다르다.

메디칼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하와이는 '메드퀘스트'(Med-Quest), 일리노이는 '메디칼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Medical Assistance Program) 등등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는 주들도 있고 메디케이 드라는 원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도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각 주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극빈 저소득층용 보험이다. 따라서 주마다 자격기준과 운영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캘리포니아 메디칼을 중심으로 메디칼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재산 한계 13만 달러

캘리포니아는 2021년 주법으로 2024년 1월부터 메디칼 자격의 자산 한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부터는 자산 한계를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000 달러 이하로 상향했다. 자산보다는 수입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부터 없어지는 자산 한계에 대한 확실한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메디칼은 저소득 극빈층에 제공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메디칼을 받지 못하며 또 받고 싶어도 스스로 자재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메디칼 자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하는 집 한채와 자동차 한대 등의 기본적인 재산은 메디칼 재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재산을 '면제' (exempt) 재산이라고 하고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비면제' (non-exempt) 재산이라고 부른다.

'면제' 재산은 메디칼 자격 심사 에서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지만 '비면제' 재산은 목록에 포함돼 메디칼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비면제' 재산이 13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칼을 받지 못한다. 다만 메디칼 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이전에 재산을 '합리적'으로 소비했다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재산

▶주택

메디칼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빌홈, 선상가옥(houseboat), 신청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거 건물, 집에 부속된 건물 등이다.

만약 양로원에 들어가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메디칼 신청서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의향을 적시하면 주택은 면제 재산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돌아가지 못해도 유지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시각 장애 또는 장애 자녀(나이에 관계 없음)가 거주하고 있어도 제외된다. 지분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아들이나 딸이 신청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계속 해당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 역시 '면제' 주택이 된다. '면제' 대상 주택은 벌금 없이 양도될 수 있고 또 메디칼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타부동산

감정가 또는 공정 마켓 가격(적은 쪽)에서 모기지과 대출과 같은 부채를 뺀 순 부동산 가치가 6,000달러 미만이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수입이 순 부동산 가치의 최소 6% 이상이라면 예외 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6%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재산으로 간주된다.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IRS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집안내 물건 또는 개인용품은 면제

▶보석류

개인이 사용하던 반지, 결혼 약혼 반지, 가보는 모두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또 기타 순수 가치가 100달러 이하의 기타 보석류도 제외되며 메디칼을 받은 사람이 양로원에 들어갈 경우 배우자 또는 파트너 소유의 모든 보석은 배우자의 양로원 입원 자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동차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된다.

▶저축성 생명보험

액면가 1,500달러 이하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하나 또는 모든 보험 총 액면가가 1,500달러 이상이라면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액(cash surrender value)은 재산으로 계산된다. 만약 해약 현금액이 13만달러를 넘게 되면 현금액이 줄어들 때까지 메디칼 자격을 받지 못한다.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은 제외된다.

▶장례계획 역시 모두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복(바꿀)할 수 없는 장례 플랜(irrevocable funeral plan)과 장례 비용으로 지정된 1,500달러 역시 제외된다. 바꿀 수 없는 장례 플랜 비용은 한계가 없지만 지정된 1,500달러 기금은 별도 구좌에 보관돼야 한다. 또 장례 기금에서 불어나는 이자 역시 제외된다.

IRAs, 직장 펜션

신청자의 이름으로 된 은퇴 플랜에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구좌내 돈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또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플랜의 돈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26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주별 메디케이드(Medicaid)의 다른 이름 (※빈칸은 메디케이드로 씀)

주(알파벳 순)	이름
앨라배마	
알래스카	DenaliCare
아리조나	Arizon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System(AHCCCS)
아칸소	
캘리포니아	Medi-Cal
콜로라도	Health First Colorado
코네티컷	HuskyHealth
델라웨어	Diamond State Health Plan(Plus)
플로리다	Statewide Medicaid Managed Care Program
조지아	
하와이	MedQuest
아이다호	
일리노이	Medical Assistance Program
인디애나	Hoosier Healthwise Hoosier Care Connect M.E.D. Works Health Indiana Plan(HIP) Traditional Medicaid
아이오와	IA Health Link
캔자스	KanCare Medical Assistance Program
켄터키	
루이지애나	Bayou Health HealthyLouisiana
메인	MaineCare
메릴랜드	Medical Assistance
매사추세츠	MassHealth
미시간	Medical Assistance or MA
미네소타	Medical Assistance(MA) / MinnesotaCare
미시시피	Mississippi Coordinated Access Network(MississippiCAN)
미주리	MO HealthNet
몬태나	
네브래스카	ACCESSNebraska
네바다	
뉴 햄프셔	
뉴저지	New Jersey FamilyCare
뉴멕시코	Centennial Care
뉴욕	Medicaid Managed Care
노스캐롤라이나	Division of Medical Assistance(DMA)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Medicaid Expansion Program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SoonerCare
오리건	Oregon Health Plan
펜실베이니아	Medical Assistance(MA)
로드아일랜드	RI Medical Assistance Program
사우스캐롤라이나	Healthy Connections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TennCare
텍사스	
유타	
버몬트	Green Mountain Care
버지니아	
워싱턴	Apple Health
워싱턴 D.C.	Healthy Families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ForwardHealth / BadgerCare
와이오밍	EqualityCare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신청과 가입 상담

HMO
(어드밴타이지 플랜)

Supplement 플랜
(보조보험 PPO)

처방약 보험

홍은주 Eun-Joo Powell Cell: (909) 576-3236

CA Lic #0L06761

메디케어

자신이 복용하는 약 커버 안 되면 낭패 볼 수 있어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 선택에 신중을

**파트 D 플랜에 따라 커버 약 달라져
보험료 이외에 약 목록 꼭 확인 필요
1.06달러에서 210.60달러까지 다양
전국 기본 보험료는 2023년 32.74달러**

시니어들의 의료비용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값이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은 주지만 약값 보험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 약값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통해 파트 D 처방전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별도로 가입하는 파트 D 약값 혜택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또는 보험사 플랜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한 독자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했다가 전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꾸면서 파트 D를 별도로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과의 처방전을 받아 안약을 구입하려 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못했다고 하며 하소연하는 전화를 받았다.

플랜마다 가격, 혜택 달라

이 독자는 자유롭게 의사와 병원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을 바꾸면서도 파트 D는 별도로 큰 의무를 두지 않고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사용할 때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파트 D는 보험마다 플랜과 가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파트 D 보험료가 적게는 1.60달러에서 많게는 210.06달러까지 판매된다. 참고로 2023년 전국 기본 파트 D 보험료는 32.34달러다.

이 파트 D 보험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또는 커버해주는 약품에 따라 결정된다.

파트 D 플랜에서 제공하는 약품 목록을 '조제약' (drug formulary) 라고 부른다.

따라서 파트 D 보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치의에 대체 약품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이 독자가 가입해 있는 파트 D는 전국 표준 파트 D 보험료 정도를 내는 보험이었다.

오리지널을 유지하려면 경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가격이 높은 파트 D 보험 플랜을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플랜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의사 처방을 들로 약국을 찾은 이 독자는 올해 디덕터블을 이미 소진했는데도 약값이 한 달에 무려 300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자가 받은 정품 브랜드 약품은 아예 플랜 커버 약 목록에 빠져 있었다. 처방전에 브랜드 약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 제너릭 제품을 달라고 했더니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제너릭 약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독자는 의사에게 보험에서 커버하는 다른 제품의 브랜드 또는 제너릭 약을 재처방 받아야 한다.

만약 이 독자가 가입하고 있는 플랜보다 80달러가 더 비싼 보험 플랜에 가입했다면 처방전으로 받은 브랜드 네임 약을 한 달 47달러로 구입해 복용할 수 있다.

많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단순 가격만 비교해 저렴한 보험료 플랜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복용하는 약,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독자가 파트 D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려면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계속되는 연례 변경 가입기간(AEP)을 이용해야 한다.

파트 D 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처방전 약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병원비 혜택을 주는 파트 A와 의사비를 커버하는 파트 B를 제공한다. 이를 연방정부에서 원래 제공하

는 보험이라는 뜻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약국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약국 혜택이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말한다.

이 약국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처방전 플랜 파트 D에 가입하거나 처방전 플랜이 무료로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메디케어 가입자 6,500만 명 중에서 4,900만 명이 파트 D 플랜에 가입해 있다. 2023년에는 전국 34개 구역에 걸쳐 독자적인 메디케어 파트 D 플랜(PDP) 801개가 판매되고 있다.

파트 D는 옵션

메디케어 파트 D는 옵션이다. 다시 말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나중에 가입하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정 금액의 벌금을 평생 내고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개인 보험회사가 판매한다. 다시 말해 각 보험회사 연방정부 기준 아래서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를 정한다.

모든 파트 D 처방전 플랜은 대부분 각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품 최소 2 가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 각 플랜마다 어떤 약품을 치료제로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플랜마다 보험료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연방정부가 정한 파트 D 플랜의 디덕터블은 올해 505달러다. 지난해 480달러보다 높아졌다. 디덕터블이란 가입자가 디덕터블에 해당하는 약값을 먼저 내고 나면 이후부터는 보험 플랜에서 약값을 보조해주는 우선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이후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연간 4,660달러까지 낸 후에는 가입자의 약값 부담이 조금 올라가다가 가입자가 부담금이 7,400달러를 넘으면 약값은 뚝 떨어지게 된다.

처방전 플랜도 메디케어 보험 가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남들보다 많은 약을 복용한다면 또는 자신의 증상이 점점 악화된다면 반드시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한 후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메디케어·메디칼

파트 B 보험료 환불 플랜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한방침술, OTC(혜택 많음)
보청기, 골프, 운동...

만 65세(1958년생 이 신분) 전화 무료 상담!!

정직, 경험, 실력 풍부함

구영순

(213)595-4700 / #OF37947

[올림픽+알바라도] (구)월서은행 2층 214호
2140 W. Olympic Blvd. #214, LA, CA 90006

귀하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플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보험 플랜으로만 제한됩니다. 모든 보험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Medicare.gov 또는 1-800-MEDICARE에 문의해 주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



1993년에 설립된 서울 메디칼 그룹은
30년의 오랜 경험과 많은 네트워크로
한인 어르신들과 환자분들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의사들의 의료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나운서 / 트롯 가수
김용필



30년의 경험과 실력으로!
메디케어 HMO 주치의는 역시 **서울 메디칼 그룹!**



캘리포니아 6년 연속 5스타
최고 등급 한인 메디칼 그룹



시니어와 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최고** 의료 서비스



폭넓은 네트워크로 전문의
최고 빠른 리퍼럴 시스템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최고 한인 대표 주치의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800.611.9862

상속

가족 간 불화 없애려면 상속계획 사전 대화 필요

아직 상속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은 시니어들이 많다. 유서도 작성하지 않고 또 필요한 서류 작업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재산 정리 문제로 가족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유언을 작성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상속 계획을 미룬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유쾌할 수 없다. 또 상속계획을 세우는 데 돈도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재산을 분배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 것인가 등등 미리 준비해 둔다면 후손들이 어려운 시기를 무리 없이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려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뉴욕 노스 우드미어의 '헬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의 레베카 헤다야-헬러 변호사는 밝혔다.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리보커블 트러스트' (revocable trust)라고 부르는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다.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정신적 육체적 불능이 생겼을 때 매우 유용한 서류로도 이용된다.

이 리빙 트러스트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같은 주에서는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재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원 공증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유언대로 분배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공개되는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누구에게 가는 지 등등 모두 가족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전부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 20대 30대 또는 그 이상의 나이라도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던져주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아예 생활이 180도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유산 계획 전문 '커클랜드 & 엘리스 LLP' 의 데이빗 핸들러는 재산이 많다면 아예 트러스트가 모든 재산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 상속자를 위한 재산 보호는 물론이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중인 배우자 또는 채무 소송에서 트러스트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상속 수혜자가 죽으면 트러스트 재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갈 경우 상속자의 재산 가치에 관계없이 추가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을 빼놓는다

요즘은 가상화폐, 또는 NFT 투자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투자자가 죽은 후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

LA '웨인스타크 매니온' 의 조나산 포스터는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화폐 투자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면서 "정보가 없다면 가상화폐를 모두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상속자에게 가상화폐의 '지갑' 을 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장에 패스워드를 적어 넣지 않는다. 이 정보는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리빙 트러스트 사전 준비 매우 중요 상속계획 매 5~10년마다 업데이트 은퇴구좌, 생명보험의 수혜자 이름 점검 한꺼번에 큰돈 물려주는 '글세'

40만 달러만 자녀들에게 분배된다. 특정 주식이나 은행 구좌를 특정 자녀에게 남길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후 이런 재산의 가치가 떨어져 원치 않게 거의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한번 작성하고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언장은 5~10년 만에 한 번씩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마음이 바뀌어도 있다. 아들에게 주려다가도 미워져 딸에게 몽땅 주고 싶을 때도 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 마음이 바뀌면 내용도 바꾼다. 또 예를 들어 20년 전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유언장 집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친척이 그동안 죽었거나 양로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다.

수혜자가 틀린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했다고 해도 연금 구좌, 개인 은퇴구좌, 기타 투자, 생명보험과 같은 서류에 수혜자 (beneficiary) 이름 업데이트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서류에 적힌 수혜자는 모든 상속 권한을 갖는다. 유언장에 이름을 올려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인에게 모든 돈이 갈 수도 있다. 또 손주에게 주고 싶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동성을 두지 않는다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10만 달러는 교회에 기증하고 남은 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상속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자산 가치가 50만 달러로 떨어진다면 교회는 10만 달러를 그대로 받을 것이고 나머지

마찰을 방지하지 못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속자 간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LA 포스터 변호사는 상속을 받는 자녀들에게 사전에 유산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후 자녀 간의 법정 다툼이나 유산 문제로 인한 절연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포스터의 고객의 이야기다. 한 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교사인 딸에게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잘살고 있는 의사인 아들에게는 거의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어머니의 상속계획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시당하고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상속계획을 고쳐 아들에게도 일정 유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만약 사전에 유산 계획을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생 엄마에 대한 원망 속에 살아갔을 것이라는 포스터 변호사는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김기자

지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들으며

'고인이 고개를 끄덕 일만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flulove@yahoo.com



소셜 기금 고갈되면 시니어 60% 빈곤층 전략

5년후 파트 A 기금 바닥으로 90%만 커버
출생률 저하, 의료비 상승이 고갈 주 원인
소셜연금 2035년 바닥나면 20% 삭감

1면에서 계속

그동안 낸 세금이 신탁기금으로 들어가 병원비를 조달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급등으로 인한 과다 지출로 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병원비의 90%만 지불되게 된다.

또 소셜 연금이라고 부르는 ‘소셜시큐리티 노년 및 생존자 보험 기금’은 2033년이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또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또한 2038년 고갈 위험에 직면하면서 두 기금은 2035년 예비 기금이 모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은 현상이 지속돼 결국 고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금이 바닥나면 들어오는 돈만으로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실제 연방정부가 약속한 금액보다 20%가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의회와 다양한 노인 옹호 단체들이 ①소셜시큐리티 은퇴 정년을 67세에서 68세 또는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②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한계 수입을 기존의 올해 16만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 또는 30만 달러, 40만 달러로 상향 ③FICA 세금의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연방 상원은 사회복지 기금의 고갈 위험을 막기 위한 초당적 ‘구조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하원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여 조만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0% 빈곤층 전략

미국 시니어들의 40%는 소셜연금에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고 90%는 수입의 일부를 소셜 연금에 의존한다. 만약 소셜연금이 삭감돼 줄어든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급증할 것이고 이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빈곤층 구호 프로그램에 손을 내민다면 미국 복지 시스템의 기간이 무너지는 대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상황이면 6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셜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소셜시큐리티는 앞으로 10년동안 지급보다 60%는 더 지출해야 한다.

연방예산국은 “예산 적자와 미국 부채의 주요 원인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다. 둘을 합친 비용인 2023년 2조 3,500억 달러에서 2033년 4조 46억 달러를 증가하게 된다. 이 금액은 미국 국방 예산보다 4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국방예산의 4배

이미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와 연방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공화,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1년 통과된 ‘트러스트 법’(S. 1295)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혁을 논의할 위원회 조직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트러스트 법’은 상원의원 미트 롬니(공화, 유타)가 제안한 것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71대 29로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또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은 위원회에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 재검토와 함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려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트러스트 법’은 의회 최고 지도자 4명이 3명을 지명해 일명 ‘구조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고갈 사태를 막아 신탁 기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 180일 내에 양원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재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OECD 혜택 삭감 추세

정부 예산국(GAO)은 “1990년대 초반 이후 30개 OECD국가 거의 대부분이 연금 프로그램을 재 개편하면서 혜택 삭감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초당적 합의와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돼 연금 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예비 기금은 2023년이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

다. 소셜시큐리티를 관할하는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트 기금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때가 되면 지불 연금이 75~80%에 그친다.

2035년이면 현재 55세가 은퇴 정년이 되는 해이고 또 올해 62세 은퇴자들이 74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럴 경우 연금은 자동으로 20~25% 삭감된다.

따라서 의회는 한시적인 조치 보다는 향후 75년간 은퇴자들이 삭감 없는 모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트는 이를 위해서는 25% 늘리는 대신 지출은 20%만 늘린다면 75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는 ‘은퇴 및 장애 신탁 기금’에서 지불된다. 이 신탁기금은 주로 근로자들이 내는 ‘연방보험 적립법’(FICA)으로 충당된다. 현재 FICA는 급여의 12.4%로 직장인은 고용주와 반반씩 나눠낸다. 이 기금이 2035년이면 안전 바닥을 드러내

게 된다. 공간이 비게 되는 것이다.

출생률이 낮아져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줄어든다. 반면 수명이 길어져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또 수입의 불균형도 한몫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FICA는 올해 16만 2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의 수입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회가 2035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은퇴자와 장애 근로자에게 80%만 지급할 수 있다.

젊은 층에 타격 더 커

연금 삭감은 현재 젊은 근로자들과 소수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1989년 출생 근로자 또는 밀레니얼 세대 49%가 기본 생활비에 필요하는 수입이 부족하게 된다.

소셜시큐리티는 만기 은퇴 정년을 올리고 있다. 1983년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사태에 직면하자 의회는 은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은퇴 정년(FRA)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FRA는 65세였으나 이후 66세로 올렸다가 1960년 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됐다. FRA가 매년 상향될수록 연금 지급 액수는 6.5%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FRA 상향으로 2021년 62세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체 은퇴자의 31%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보다 60%가 줄어든 숫자다. 하지만 은퇴 근로자의 84%가 66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한다.

김정섭 기자 20면에 계속



복잡한 메디케어보험 자세히 도와드립니다.

65세 되시는 분
(1958년 생)

- ☑ Part B 보험료 혜택
- ☑ Part A 또는 Part B를 늦게 받으신 분
- ☑ 타주/카운티에서 이사하신 분
- ☑ 직장 보험에서 나오시는 분
- ☑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비용으로 고민하시는 분

조이스리 0L98108

(213) 500-8330

지금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GW 골드웰 종합보험
GOLDWELL INSURANCE SERVICES

2023년 재정 전략

FICA 택스로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기금 확보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가끔 독자들이 소셜시큐리티 택스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한다. 세금을 얼마나 내며 또 어떤 세금을 내야지 소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문의이다.

예전에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았지만 요즘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셜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다.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를 받을 때마다 FICA 택스가 급여에서 떼어진다. FICA는 '연방 보험 적립법'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의 약자다. 근로자 대부분은 15.3%를 낸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한다.

1930년대 대공황부터 시작된 세금으로 정부의 소셜 안전망 즉,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중요한 기금 원이다.

아무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FICA 세금을 내면 연방정부가 은퇴 연금과 건강 보험 형태로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요즘은 납세자가 내는 세금보다 소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앞으로 10년 후에는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다. 그렇다면 62세부터 일찌감치 연금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FICA 택스란

FICA 택스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불급여세 즉, 페이롤택스 (payroll tax)다. 낸 세금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 기금으로 적립, 사용된다.

1차대전 후 미국의 잉여 전쟁물자가 넘치면서 극심한 불경기로 실직자가 넘쳐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가 재건 사업 '뉴딜 정책'의 하나로 1937년 FICA가 시작됐다. 1935년 '연방 보험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의 15.3%, 직장인은 반반씩
소셜시큐리티 12.4%, 메디케어 2.9%
20만 달러 이상 메디케어 0.9% 부가세
연방 소득세는 공공 이익 위한 세금

시니어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소셜시큐리티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미래 은퇴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자가-기금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프로그램이 커지고 근로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연금(surviving spouse), 장애인 연금, 연방 공무원 연금 등이 추가되면서 기금 적립 방법이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FICA 택스로 모아지는 돈은 현재 은퇴자, 장애인, 생존 배우자를 위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으로 적립된다.

메디케어 세금은 1965년 의회가 '메디케어 메디케어법'을 통과시킨 후 FICA세금에 추가됐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은 지급되는 돈이 많아져 기금이 줄어들자 현재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낸 세금까지 보태 은퇴자 연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에 내 몰리게 됐다.

FICA 택스 계산

FICA 택스는 소셜시큐리티 세금(12.4%)과 메디케어 세금(2.9%)을 합쳐 15.3%다.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급여의 7.65%를 각각 낸다. 직원의 봉급에서 떼어 세금은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곧바로 보낸다.

어떤 경우는 급여 명세서에 소셜시큐리티 택스 공제가 표시돼 있지 않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떤 직장은 이 세금을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라 이름을 쓴다. 동일한 단어다.

세금 공식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다.

▶메디케어 택스: 메디케어 택스 계산은 아주 간단하다. 모든 근로소득의 2.9%를 낸다. 이를 고용주와 반반씩 부담한다. 수입이 20만 달러(개인) 또는 25만 달러(부부공동) 이상이라면 여기에 0.9% 부가세가 더 붙는데 이 부가세는 고용주와 나누어 내지 않는다.

▶독신 보고: 근로소득 19만 9,999

달러까지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1.45%를 지급한다. 20만 달러 이상이면 고용주 1.45%, 종업원 2.35%가 세금이다.

▶소셜시큐리티 택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일정 소득까지만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2023년 근로소득 16만 200달러까지만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다. 이상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연금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에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으므로 한계 금액까지만 연금을 주는 것이다.

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수입 한계는 매년 조금씩 상향된다. 2023년은 2022년보다 1만 3,200달러가 늘어나 역대 최고 폭으로 올랐다.

누가 FICA 택스를 내나

직장 급여를 포함해 일을 해서 번 돈이 있다면 FICA 택스를 내게 된다.

급여 수표를 받으면 FICA 택스가 자동적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자영

업자라면 15.3%를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FICA 택스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IRS에 따르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Nonresident aliens') ▷특정 종교기구 직원 ▷현재 등록된 학교에서 일을 하는 학생 ▷외국 정부 파견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이 예외 대상은 각 개인마다 기준에 맞아야 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받지 못한다.

FICA 대 연방소득세

FICA와 연방 소득세 모두 급여에서 우선 공제되지만 별개의 세금이다. 설명했던 대로 FICA 택스는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과 '메디케어 병원 보험 신탁기금'으로 각각 들어간다.

반면 연방소득세는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고속도로 등등의 공공 이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연방정부 부채의 이자로도 지급된다.

이들 세금 모두 IRS가 거둬들인다. 자넷김 기자

시니어들도 건강검진 없이 생명 보험 가입 가능

피검사, 소변 검사 없이 수 시간 내 가입
텀 라이프, 홀 라이프 모두 가능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달 내는 보험료에 비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말로 대체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생명보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혜택 볼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 보험회사에서 거절할 것이라는 짐작 때문이다.

그러나 시니어들에게도 생명보험은 매우 유용한 재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많은 분명한 사실이다. 장례 비용 조달이나 세금 없는 유산 상속 등등 다양한 용도의 유용한 재정 대책이다.

하지만 시니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폭이 넓지는 않지만 요즘은 아예 가입할 때 건강 검진을 요구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품도 나와 있다.

성인들 대부분이 가입 가능하지만 특히 시니어들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특화 상품이 될 수 있다.

건강검진 없는 생명보험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성가신 절차인데다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다.

피검사, 혈압 측정, 소변검사 등등. 생명 보험 건강 검진은 매우 정밀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좀더 정밀하게 알고 싶어 일부러 생명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결과가 나온 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니어들에게는 번거롭고 두려운 절차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라면 검진이 필요 없는 건강 보험이 좋을 옵션이 될 수 있다.

▶가입이 빠르다

가입 신청 절차에서 전통적인 건강검진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건강 검진이 필요한 보험은 검진 날짜 잡



는데 만 수주 이상 걸릴 수 있다. 또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검토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므로 보험 가입 결정이 매우 빠르다. 어떤 경우는 수일 또는 수시간 내에 결정되기도 한다.

▶저축성 생명보험 가능

생명보험은 크게 저축성(whole)과 정기(term) 생명보험으로 나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이외에 적

립되는 현금을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정기생명보험은 현금이 적립되지 않으며 보험도 일정 기간내에서만 적용된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갱신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크게 오른다.

이 건강검진 없이도 저축성과 정기 생명보험 구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도 있다.

시중에 다양한 건강검진 없는 생명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전문 보험 에이전트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넷 기자

생명보험은 살아서도 사용 가능한 상품

생명 보험의 오해와 진실

텀라이프에 '보험료 환불' 조항 유용
장기간병 비용 조달 대체 방법 가능

오래 살면 돈을 받지 못한다?

약정 기간에만 혜택을 주는 정기생명보험(텀 라이프, term life insurance)은 20년 또는 30년 등 약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갱신하지 않는 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생명보험 계약 때 "보험료 환불" (return of premium) 조항을 구입해 넣는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모두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나이가 젊고 또 건강하며 가족들이 장수한다면 매력적인 상품이다.

나이가 젊고 건강한데 돈만 버리고 정기생명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면 정기생명보험 계약에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좋다. 물론 보험료는 기본 조항에 조항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더 비싸진다.

시니어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

나이가 들어 구태여 건강보험이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이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건강이 악화돼 말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장례 비용도 커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

람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부채 청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죽어야만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해 놓고 있고 지낸다" 라가 정설이다. 보험료만 내면 죽은 후 목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생명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 생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적립된 현금이 있다면 가입자가 살아생전에 빌리거나 찾아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찾아 쓴다면 사망 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찾는 것보다는 빌려 쓰고 갚는 방법이 좋다.

또 죽을병에 걸린다면 살아 있을 때 보험금이 지불될 수도 있다. 또 요즘은 장기 간병 옵션을 포함시켜 장기 간병비도 조달할 수 있다.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저녁까지 제공

- **질 좋은 식사**
(아침·점심·저녁)
- **간호사·소셜워커·영양사
상담사 등 상주**
- **IHSS·은행 등
통합 서비스 제공**

K - 타운 시니어센터

3400 Olympic Blvd. LA, CA 90019
(323)334-4600

크렌셔 커뮤니티 센터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213)201-7700

세금보고

나이 제한 없이 IRA에 세금 마감일까지 적립 가능

시니어에 유익한 세금 보고 '팁'

세금 보고 마감 4월 18일, 재해지구는 연장 65세 이상 부부 표준 공제액 2만 8,700달러 수입 많으면 소셜 연금 일부 최고 85%까지 과세 아르바이트로 자동차 썼다면 마일리지 공제

2022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연방 국세청은 팬더믹으로 인한 각종 크레딧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올해 세금 환급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세금 보고 때 주의를 기울여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미 2022년이 끝났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다소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CPA들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이를 잘 챙기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올 세금보고때 시니어들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을 인터넷 매체 마켓 위치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금 보고 날짜 지키기

대부분 미국인들은 올 4월 18일까지 2022년 세금 보고를 마치거나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 연장을 한다고 해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다.

만약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에 거주한다면 4월 19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자연재해 선포지구에 산다면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 한파로 비상지구가 선포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개인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올해 5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만약 보고 시한을 놓쳤다면 10월 16일까지 연장해 마무리해야 한다. IRS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시니어들의 세금 보고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빠른 세금 보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온라인을 이용하면 좋다.

적립하기

모든 세금관련 수입 지출은 12월 31일로 마감된다. 하지만 IRA에 세금 보고 마감 때까지 적립하면 2022년

세금 보고때 과세 수입을 낮출 수 있다.

만약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일을 해서 번 수입이 있다면 개인 은퇴구좌 IRA에 적립하면 된다. 그러면 그만큼 과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적립하는 돈은 2022년 세금 보고에 포함되는 말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다면 이 방법으로 사용해 세금을 낮춘다.

IRA 적립가능한 연령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팬더믹 기간 중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다만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IRA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 구좌에서의 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RMD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근로 소득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IRA에 계속 적립할 수 있다.

2022년 50세 이상 시니어의 IRA 최대 적립금은 7,000달러까지다.

구태여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면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를 이용한다. RMD에 적용되지도 않고 불어나는 수익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직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료저축구좌(HAS)에 세금전 수입을 적립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수입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 된다. 이를 세금 공제라고 부른다. 의료비, 교회 등 자선단체 도네이션 등등 다양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연방 정부는 아예 전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동일하게 공제금을 정해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2022년 표준 공제금 독신 또는 부부 별도 세금 보고의 경우 1만 2,950달러이고 부부는 2만 5,900달러다. 총 수입에서 표준 공제를 제하고 난 돈에 대해 세금을

산출한다. 만약 65세 이상 부부는 1,400달러 씩 표준 공제금이 높아

진다. 총수입이 표준공제금액 미만이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금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팬더믹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제받을 금액이 표준 공제금액보다 많다면 지출 비용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면 된다. 이를 항목별 공제라고 한다.

임시직 수입의 경비 공제

은퇴 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도 좋고 컨설팅도 좋다. 이런 경우 다양한 경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세금보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크레딧카드 청구서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지출 경비가 있다면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돈벌이에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는 마일리지당 58.5센트를 총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2022년 7월 1일~2022년 말까지는 마일당 62.5센트를 비즈니스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보고때 공제한 지출 내역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영수증, 수표, 청구서 등등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 계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면 수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에 한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 12개주를 제외해 대부분의 주는 소셜연금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는 세금을 받는다.

일반 소득과 비교 세 이자, 소셜연금의 절반을 합친 '종합 수입' (combined income)이 일정 수입 한계를 넘게 되면 초과 수입만큼의 소셜연금에서 50% 또는 85%까지 과세 된다.

RMD 찾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950년 이전 출생자는 은퇴 저축구좌에서 반드시 일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이를 RMD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 RMD 연령을 72세에서 2023년 73세 올렸다. 돈을 찾지 않으면 찾아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25%로 낮아진다.

2023년 첫 예상 세금 지불

분기별로 예상 세금을 내고 있다면 2023년 첫 분기 세금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내야 한다. 보통 스케줄 C 또는 S 코포레이션으로 1,000달러 이상의 예상 세금을 낼 경우에 해당된다. 자넷김기자



엘림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에이전시입니다.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그룹건강보험
- 메디칼 및 소셜 연금
- 생명보험
- 사업체 보험
- 은퇴연금
- 자동차 보험
- 주택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메디칼을 신청하세요.

2024년부터 메디칼 자산한도가 없어집니다.
2023년도는 1인 \$130,000 2인 \$195,000



엘림 종합보험
ELIM INSURANCE & RETIREMENT SERVICES INC.
License # 0M99487

Los Angeles **213.315.5052**
LA 한남마켓 건너편
2727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06
hanna@aceinsus.com

Fullerton **714.382.6883**
플러턴 아리랑마켓 안
1701 W Orangethorpe Ave #101
Fullerton, CA 92833
candice@aceinsus.com

은퇴 연금

65세에 5만 달러 '즉시 연금' 구입하면 월 296달러

**‘어누이티’ 평생 수입 보장 연금 상품
일정 기간 투자 후 재계약 가능
이자율, 기대수명 계산 달라 상품 비교해야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아 월 지불금 적어**

어누이티(annuity)는 우리말로 ‘연금보험’이라고 부른다. 일정 금액을 어누이티 회사에 맡겨 두고 은퇴 후 매달 정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돈을 받는 유용한 자금 마련 프로그램이다. 소셜 연금 이외에 은퇴 후 정기 수입을 원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특히 요즘은 장기간병보험까지 덩어리로 받을 수 있는 플랜도 많아 장기간병보험의 대체 방법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만 달러의 은퇴연금 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지불되는 월 페이먼트는 회사마다 이자율이 다르고 기대수명 테이블,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이 다르므로 일반적일 수는 없지만 대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어누이티(annuity)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은퇴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말년에 돈이 떨어져 궁핍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예 정부 구제금 SSI를 받는 극빈자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왔던 시니어들은 말년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두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른 투자 상품에 넣는 것도 불안하다. 상황에 따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누이티는 보장된 상품이다. 계약할 때 정해진 금액과 지불 일정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보장되기 때문이다. 부부라면 두 명 모두 숨질

때까지 고정 수입이 지불될 수 있다. 또 남은 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수도 있다. 구입 즉시 매달 약속된 돈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보험회사가 맡아 불러 나가다가 약속된 나이부터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넣어 줬다 받으면 지불금은 더 많아진다. 아직 은퇴 준비가 안 된 나이라면 어누이티는 세금 유예 혜택도 제공하는

401(k)와 IRA와는 달리 연간 최대 적립금 제한이 없다. 또 수입이 없어도 적립할 수 있다. 적립 투자금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 세금 후 수입으로 적립했다면 전통 은퇴 플랜처럼 일정 나이부터 찾아 써야 하는 ‘최소 인출 분배금’(RMD)도 없다. 다시 말해 약정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돈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월 지불금

어누이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종류의 어누이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즉시 연금(Immediate annuity)
일정 돈을 입금시킨 후 즉시 매달 나누어 받기 시작하는 상품이다. 물론 보험사는 이 돈을 받아 각종 투자 상품에 투자해 불러 나가면서 약속된 돈을 매달 지불해 주는 것이다. 이 월페이먼트는 모두 과세 소득은 아니다. 원금과 함께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

은퇴 연금 5만달러 투자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단위: 달러)

남성		60세	65세	70세	75세
즉시 연금 (Immediate annuity)		263	269	331	388
종신 및 10년 확정 연금 (Life & 10-Year Certain Annuity)		269	302	336	377
현금 환불 종신연금 (Life with cash refund)		260	290	320	360
여성		60세	65세	70세	75세
즉시 연금 (Immediate annuity)		251	280	308	360
종신 및 10년 확정 연금 (Life & 10-Year Certain Annuity)		258	288	317	354
현금 환불 종신연금 (Life with cash refund)		252	279	305	339



※월 수입, 어누이티의 종류, 성별, 거주지 위치, 나이 등에 따라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을 가정.

을 내지 않는다.

▲유예 연금(Deferred annuity)

오늘 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일정 기간 기다린다. 돈은 일정 기간 후 찾기 시작할 때까지 불어날 것이다. 기간은 구입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정액 연금(Fixed annuity)

구입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 이자율을 받는다. 이자는 채권 또는 CD와 비슷하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구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분할해 받거나 계약을 다시 맺어 계속 이자를 불러 나갈 수 있고 또는 다른 어누이티 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다.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뮤추얼 펀드와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다. 구좌 내 돈이 금융 상품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품은 은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종신 및 기간 특정 연금(Life and period certain annuity)

보험회사에서 약정된 기간동안 연금을 지불한다. 도중에 가입자가 죽

었다고 해도 페이먼트는 지불된다. 이 상품은 연금이 지불되기 시작한 후 일찍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현금 환불 종신연금(Life with cash refund)

월 페이먼트를 받기 시작한 후 죽게 되면 지불되지 않은 보험금을 배니피셔리(상속자)에게 모두 환불하는 상품이다.

5만 달러 어누이티의 예

5만 달러 어누이티를 구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더 쉽게 어누이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월수입은 당연히 어떤 종류의 어누이티를 구입했는지, 성별, 거주지 위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해 보자.

60세, 65세, 70세, 75세 남성이 즉시 어누이티(Immediate Annuity)를 구입했다면 매달 263달러, 296달러, 331달러, 388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종신 연금에 가입했다

면 각각 269달러, 302달러, 336달러, 377달러를 받는다.

현금 환불 종신연금에 가입하면 260달러, 290달러, 320달러, 360달러를 받는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기대 수명치가 길다. 따라서 어누이티 회사들은 남성보다 더 오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의 어누이티 페이먼트는 조금 낮다.

동일한 기준으로 여성들의 페이먼트를 비교해 보면, ‘즉시 연금’의 경우 60세, 65세, 70세, 75세의 여성은 각각 251달러, 280달러, 308달러, 360달러를 받는다. 10년 종신 상품이라면 258달러, 288달러, 317달러, 354달러를, ‘환불 종신연금’의 경우 252달러, 279달러, 305달러, 339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5만 달러 어누이티 페이먼트는 회사마다 다르다. 각 회사마다 다른 가이드라인과 이자율, 기대 수명 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정섭 기자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US메트로뉴스

종이신문과 인터넷의 장점을 접목하여 정보읽기의 효율성과 독자의 편의성을 높인 뉴스 서비스입니다.

usmetronews.com



US메트로뉴스

미국 기독교인 92%→ 67%로 감소

미국 교회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자들이 줄어들고 기독교를 떠나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팬더믹 이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성전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더가디언'이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4,500개의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은 반면 3,000개만 새로 시작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 단체의 스캇 맥코넬 대표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해도 많은 교인에 영향을 준다.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무너져 교회마다 다시 교인을 불러 모으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년간 모든 징후들이 2019년과 비슷한 속도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가 없다고 밝히는 미국인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면서 문을 닫는 속도는 더 높아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신교 목사들 역시 출석 교인 수가 팬더믹 이전의 8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였다.

시카고 대학과 '미국 생활 서베이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봄 미국인 67%만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팬더믹 이전에는 75%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세가 가속화된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이 종교를 등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 세대 교회 등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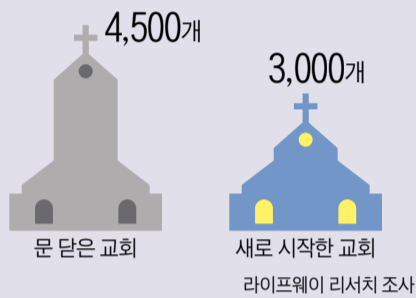
2017년 '라이프웨이'는 고등학교 때 최소 1년 이상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했던 18~22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

맥코넬 대표는 이유 중 하나로 '교통문제'를 꼽고 있다. 대학에 진학해 멀리 가거나 직장을 가지면서 교회에 나가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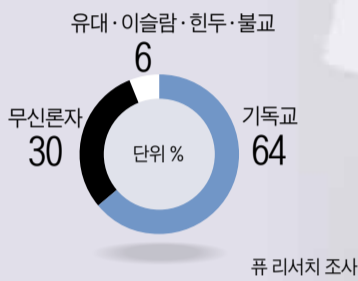
맥코넬 대표는 "하지만 교통 문제

신도 수 줄면서 교회 매물 많아져
젊은 세대 "교인들의 위선" 싫어
젊은이 10명당 7명 정기 출석 안 해
변화하는 인구, 환경 적응 못 해 문 닫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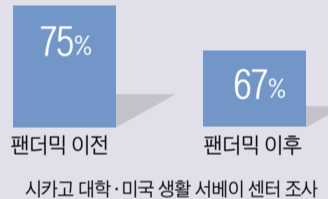
문 닫은 교회와 새로 시작한 교회 수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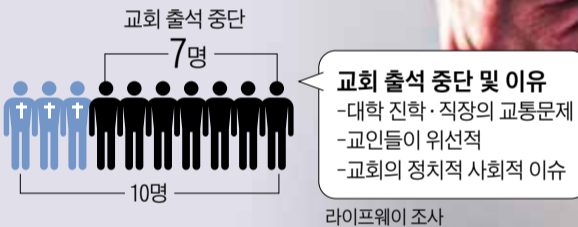
기독교라고 밝히는 미국인 비율 (2020년 기준)



1년에 한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 교인 비율 (2022년 봄 기준)



교회 출석 중단 비율 (2017년, 18~22세 기준)



만큼은 아니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인들이 위선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회 출석을 중단한 젊은 세대의 4분의 1은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미국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구인 '퓨 리서치'는 기독교라고 밝히는 미국인은 2020년 미국 인구의 64%였고 30%는 '종교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또 6%는 유대, 이슬람, 힌두, 불교 신도다.

퓨는 "1990년대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기독교를 떠나 무신론, 불가지론 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자신을 표현하는 성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종교 지형의 변화

1972년 미국인 92%는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70년까지 이 인구는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아무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미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메리대학에서 종교 사회학

과 신학을 가르치는 스테픈 벌리반트 교수는 기독교계의 세대별 변화에서 기인된다고 밝혔다.

조부모 세대에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갔고 그들의 자녀들은 신을 믿는다고 말할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면 교회 출석 또는 친교가 점차 줄어들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특히 사제 성추행 스캔들이 미진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했을 것이다.

팬더믹 영향

팬더믹으로 신앙심이 약한 많은 신도들이 수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 또는 "뭔가 다른 일을 하자" 또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기도 어려워 그래도 정말 교회에 다시 나가야지 다음주에.." 등등.

벌리반트 교수는 다른 나라 대부분은 미국보다 훨씬 먼저 종교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나마 미국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무신론자들은 훨씬 일찍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통 기독교 도덕과 분리되는 숫자가 점점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인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교회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게 된다. 결국 한때 성전이었던 교회를 판다는 세일 광고가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회가 주택 단지로

교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회사 'AD어드바이전'의 브라이언 돌하이드는 지난 10년 새 매매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교회가 주택 단지로 또는 케어홈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일부 교회는 다른 교회를 구입해 교세를 더 확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판매는 주택이나 비즈니스 판매와는 다르다. 많은 경우 교회를 내놓는 측은 교회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사람을 원한다.

돌하이드 에이전트는 엘파소 교회는 지금 최근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위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

고 피츠버그의 한 교회는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냐

텍사스의 존 뮤지카는 매물로 나오는 교회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 주지사가 2020년 5월 교회를 다른주보다 일찍 문을 열게 한 것 때문에 생각된다면서 팬더믹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1년 이상 문을 닫는다면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3개월 문을 닫는다면 회복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것도 교회가 문을 닫는 원인이다.

교회는 라이프 사이클과 같다. 어떤 순간 교인들이 나이 들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못 한다면 또는 변화하는 인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다음 세대 교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재정 압박으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결론지었다. 김정섭 기자



메디케어

소셜번호 있는 불체 한인 ‘메디케어’ 받아

불체자 메디케어-사연 3

H씨 불체 신분 밝히고 인터뷰
“용기내어 신청해 보라” 권고
파트 C 가입은 삼가해야
처방전은 저소득층 메디칼로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 가능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H모씨는 최근 메디케어를 신청해 카드를 받았다. H씨는 소셜번호는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이다.

본보는 지난해 10월호와 2월호 두 차례에 걸쳐 옥스나드 거주 한인 김철수씨(가명)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김씨는 H씨와 같이 소셜번호는 있지만 신분은 불체다. 김씨는 메디케어를 받고 일반 건강보험 회사의 HMO 메디케어에 가입해 2년간 사용하다가 회사를 바꾸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메디케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보 기사를 읽은 H씨는 소셜오피스를 찾아가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설명한 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2주만에 메디케어를 받았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까지 우편으로 받았다.

H씨는 “내 사연을 US 메트로뉴스에 공개해 움츠리고 살아가는 같은 처지의 한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서 “용기를 내어 일단 도전해 보라”고 권했다.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미국 시니어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 복지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일을 해 세금을 내고 40 크레딧(1년 4 크레딧씩)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0 크레딧이 넘지 않으면 장애인 연금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하지

만 배우자, 이혼 배우자, 사별 배우자는 크레딧이 없거나 부족해도 일정 결혼 연수 조건만 맞다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이 번호를 이용해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받은 IRS는 이 세금(FICA)을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하고 세금은 관련 ‘신탁기금’에 입금된다.

만약 소셜번호가 없다면 세금을 냈다고 해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타인의 소셜번호를 사용해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내준 복지세금과 같다.

최근 택스 ID로도 세금 보고를 한다면 받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소셜번호는 소셜시큐리티국에서만 발행하고 택스 ID는 세금 징수 목적으로 IRS가 발행하는 고유 번호로 소셜번호 9자리수와 동일하다.

소셜시큐리티국 국장은 최근 연방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IRS가 택스 ID로 받은 세금기록을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해도 소셜번호가 없다면 누구의 세금인지 확인해 수입으로 기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셜번호 있는 불체자

소셜번호가 있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받지 못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귀국해 소셜시큐리티 세금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받으려면 노동허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는



나는 의문이 생긴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힘들다. 다만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의 열어준다”는 말이 있다. 매우 애매한 규정으로 찾다가 불분명한 경우는 직접 두드려보라는 것이다.

H씨 케이스

본보에 지난 1월 H씨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 10월 옥스나드 김철수씨의 불법체류자 메디케어 기사를 봤다면 “같은 처지인데 메디케어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다.

사실 김씨는 이후 메디케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본호 2월호 자세한 경과 기사 참조).

H씨는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겠다고 인근 소셜오피스를 찾아가다.

그곳의 한인 직원은 H씨에게 “서류상으로는 혜택을 보기에 충분하며 완벽하지만 신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라”며 슈퍼바이저에게 문의했다. 슈퍼바이저 역시 “조건은 충분하지만 신분이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일반 인터뷰 날짜를

잡아줬다.

날짜에 맞춰 전화 인터뷰를 마친 H씨는 2주후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유효날짜가 명시된 메디케어 ID카드를 받았다.

H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솔직히 답했다”면서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시도해 봤는데 결과가 좋았다”며 기뻐했다.

주의점

본보에 소개됐던 옥스나드 거주 한인 김씨 역시 신분 때문에 망설이다가 늦게 신청해 벌금까지 내며 메디케어카드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주변의 권유로 한 회사의 HMO 메디케어를 가입해 2년간 잘 사용하다가 다른 회사의 플랜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됐다. 바꾼 회사에서 불체 신분을 이유로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메디케어 파트 C 가입 조건은 합법체류 신분에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도 혜택도 함께 중단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

회사가 소셜시큐리티국에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소셜국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라는 청구서를 매달 보내고 있다. 소셜 오피스는 김씨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은 김씨의 선택이라며 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합법 신분을 갖게 되면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메디칼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5월부터 50세 이상 저소득 불법체류자에게도 주정부 메디칼(메디케이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24년부터는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메디칼을 제공한다.

만약 소셜번호가 있는 불체 신분으로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절대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지 말 것을 적극 권한다. 다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전 혜택이 없으므로 메디칼에 가입해 처방전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재정 투자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인 21% 수수료 내는지 몰라
장기간 누적되면 투자 수익 깎아먹어
401(k)를 IRA로 롤오버때 투자 수수료 주의
투자 수수료 적은 S&P지수 펀드 투자 인기
연 0.5% 수수료 넘으면 주의해야**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면 수수료가 받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다. 특히 장기간 투자하면 연 수수료 누적돼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신들이 투자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투자 상품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

‘재정 규제 당국 투자자 교육 재단’이 실시한 ‘미국 투자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 21%는 투자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업종 간 자율규제 기구인 FIRNA의 설문조사 결과 14%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또 투자자 17%는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모른다.

재정 서비스는 서비스 피 받아

재정 및 금융 회사들은 공짜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

투자 펀드건 또는 재정 조언이던간에 이들 회사는 투자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런 수수료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

물론 재정 회사들은 작은 글씨로 그들이 받는 수수료를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 투자 자산 관리 비용으로 떼는 돈은 고객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재정 자문회사 ‘모닝스타’의 개인 재정국 크리스틴 벤즈 국장은 “상대적으로 수수료 갈등은 없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료로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액 수수료 장기간 큰돈으로 불어나
투자 수수료는 보통 투자자 자산의 %로 계산돼 매년 지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는 예를 들어 2021년 뮤추얼 펀드, 주식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투자 수수료로 평균 0.40% 지불했다. 이 수수료를 ‘비용 지급 비율’(expense ratio)이라고 부른다.

만약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1년 40달러를 수수료로 냈다는 의미다. 이 수수료는 매년 투자 잔고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얼핏 보면 별로 크지 않은 비용으로 생각해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다면 복리로 불어나 매우 큰 돈이 될 수 있다.

뱅크드 그룹에 따르면 “작은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년 동안 누적되면 큰 돈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FIRNA 설문조사에 참여한 투자자 96%는 투자의 주요 목적을 장기간 투자해 돈을 불려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은 장기 투자자가 수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20년간 연 4% 수익 투자로 계산해 보자. 연 0.25%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와 1%를 내는 경우를 비교하면 20년간 투자금은 20만 8,000달러(0.25% 수수료)와 17만 9,000달러(1% 수수료)로 각각 불어난다. 하지만 수수료로 인해 3만 달러가량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100만 달러 투자금을 가진 사람의 은퇴 후 1년 투자금 인출과 맞먹는 금액이다.

SEC은 고비용 펀드는 저비용 펀드보다 훨씬 좋은 실적으로 올려야만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401(k) 롤오버 결정에 주의

401(k)을 개인 은퇴구좌(IRA)로 옮길 때 수수료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등을 포함한 펀드 규제 자체 협회인 ‘투

자회사연구소’(ICI)에 따르면 롤오버는 보통 은퇴 후 또는 직장을 옮길 때 전통 IRA로 401(k)을 이체할 때를 말한다. 2018년 전통 IRA의 76%가 직장 플랜에서 롤오버된 돈이다.

미국 가정의 28%에 해당하는 3,700만 가정이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구좌인 전통 IRA를 가지고 있다. 금액만도 2021년 연말까지 무려 11조 8,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IRA 투자는 401(k) 플랜 투자 때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무당과 연구기구인 ‘퓨 채리티블 트러스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롤오버한 사람들은 25년간 누적 수수료로 455억 달러를 지불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 하락

연 수수료 구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재정 플래너들은 고정 수수료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가입회비를 받거나 1회 컨설팅 비용 등으로 수수료를 전환하는 추세다.

또 수수료 모델도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단일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매년 받는 수수료 대신 투자할 때 커미션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는 펀드도 있다. 하지만 이런 회사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다른 상품과 받지 않는 펀드를 섞어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수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는 2001년 이래 평균 0.87%에서 0.4%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요즘 수수료가 적은 펀드, 특히 인덱스 펀드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수펀드라고 불리는 인덱스 펀드는 수동관리형이다. 어드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라는 말이다. S&P지수와 같이 주식과 채권 비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마켓 펀드를 말한다. 미국 증권 실적을 지표로 나타내는 S&P 지수는 능동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역시 싸다.



투자자들은 2021년 능동 펀드에 평균 0.60%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인덱스 펀드에는 수수료로 0.12% 지불했다.

벤즈 재정국장은 0.50% 수수료가지는 좋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특화된 펀드 또는 스몰 펀드는 수수료가 좀 더 비싸도 그만큼 수익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는 1% 이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1% 이상을 받는 재정 어드바이저라면 고객에게 투자 관리 이외에도 세금 관리 및 광범위한 재정 계획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Lic #0199095

무료

소셜연금 메디케어 건강보험 은퇴플랜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섭

Wilshire4525@hotmail.com
(323)620-6717

라이프

불안감, 스트레스, 고민이 숙면의 가장 큰 적



요즘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적정 수면은 7~8시간이다. 또 시니어들은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모두 속설이다. 잠을 잘 자야 장수한다.

사실 하루에 수차례 잠에서 깨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면서 깊은 잠과 선잠을 반복한다.

나이 든 시니어들은 한두 차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기도 한다. 잠을 자다가 깬다고 해서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선잠이 들었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시 깊은 잠에 들게 된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다가 잠에 들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밤중 자주 깨어났다가 다시 잠을 청하려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네소타 메요 클리닉의 수면 의학 전문의 캐난 레이마는 다시 잠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최소 3달 간격으로 1주 3회 이상이라면 만성 불면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수면 의학 학회장이기도 하다.

스트레스, 고민

불면증의 2가지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와 고민이다.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보면서 다음날 일을 하려면 빨리 잠을 더 자야

한다고 초조해하거나 각종 청구서 걱정, 기타 걱정을 머릿속에 가득 떠올린다면 스스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깨우는 효과를 가져온다. 교감신경계는 본능적 반응을 하는 신경계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작동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고 심박동수를 다시 증가시켜 잠에서 깨어나는 단계로 이르게 한다. 이런 상태가 된

시니어도 하루 7~8시간 숙면 필요 생체시계 잘 유지하고 빛 쬐여라 숙면 어렵다면 명상 등 마음 비우기 연습 늦은 시간대 술은 수면에 큰 '적'

다면 쉽게 다시 잠을 들지 못한다.

라마 전문의는 “스스로 지난밤에도 똑같은 시간에 깨지 않았나? 왜 매번 이러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서 “이런 생각은 전혀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마음 진정시키기

깨어 있는 시간이 25분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우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용한 일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잠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다소간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심호흡이나 명상도 좋

다. 명상과 심호흡은 만성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용히 앉아 뜨게질을 하거나 책이나 잡지 읽기도 좋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스마트 폰 사용은 삼가하라고 조언했다. 스마트 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즉, 블루라이트는 졸음을 몰고 오는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면을 촉진하는 많은 명

상음악과 책읽기 등의 서비스 앱도 많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추스른 다음 피곤함을 느낀다면 침대에 들어 잠을 청한다.

저녁 시간대 알코올 섭취는 금한다

다소간의 알코올은 수면제 역할을 하므로 쉽게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늦은 시간대에 술을 마시면 몸에서 이를 분해하는 작용을 계속 해야 하므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잠들기 전 알코올 섭취는 잠을 설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피한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는 하지 않는다. 카페인은 몸속에서 저녁 시간때까지 잔류할 수 있다. 오후 3시 30분에 커피 한 컵을 마시면 몸속에서 흡수된 카페인 4분의 1은 12시간 후에도 체내에 남아 있다.

늦은 낮잠 피하기

늦은 오후의 낮잠을 피한다. 늦게 낮잠을 자면 잠을 청하기 힘들고 또 밤에도 숙면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의는 늦은 시간대 낮잠은 ‘항상성 수면 추동’이라고 부르는 수면 작동을 감소시킨다. 이 ‘항상성 수면 추동’은 저녁에 잠을 자도록 하는 신체작용이다.

낮잠을 자야 한다면 아침 또는 이른 오후에 청하고 잠도 30분 이내에 해결한다.

미국 시니어들의 25%는 낮잠을 잔다. 젊은 사람들의 8%보다 높다.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페인버그 의과대학의 수면 신경과 사브라 애보트 조교수는 “잠잘 시간 가까울 때 낮잠을 자거나 너무 길게 자면 수면에 들어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잠에 드는 시간을 엄격히 지킨다

잠에 드는 시간이나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 생활 주기를 해친다. 이 생활 주기는 잠잘 때와 깨어날 때를 정확히 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 배고플 때 등등 우리의 일상을 일깨워 주는 ‘생체 시계’다. 이 주기가

깨지면 밤에 잠을 청하기가 어려워진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한다. 이상적인 기상 시간은 해가 뜬 후 최소 15분 이내다. 멜라토닌 생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에 잠을 잔다.

기상과 수면이 불규칙하면 불면증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화장실에 자주 간다면 물 또는 기타 음료를 잠들기 전 2~4시간에는 마시지 않는다.

미국 노인들의 80%가 야간빈뇨로 잠을 설치다.

만약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다면 우선 수면 무호흡증 또는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는지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아야 한다.

시니어들은 숙면에 변화가 생긴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불행하게도 많은 시니어들은 충분한 노출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일 하루 한 시간 이상 빛을 받아야 한다고 전국 수면 협회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또 정신적, 육체적 건강 또한 시니어 수면을 방해한다. 우울증, 고민, 심장질환, 당뇨병과 관절염 등의 통증도 시니어들의 숙면을 방해한다.

자넷김기자

올해 대학 지원자 증가로 합격률 낮을 것

합격 통지서 받으면 5월 1일까지 입학 의사 전달 대학은 합격 통지서 취소 권리, 끝까지 성적 관리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 왔다.

3월 중순부터 4월 1일 사이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전형(regular admission) 합격자를 발표한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입시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표준 학력평가 시험인 SAT 또는 ACT 점수 제출을 지원자들의 결정에 맡기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지원자 증가로 인한 낮은 합격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자 발표 후 지원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1. 내셔널 칼리지 디시전 데이

미국 대학은 지원 대학 수의 제한이 사실상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복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지원자는 자신이 합격한 대학들 중 하나를 결정해 통보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이 5월 1일이다. 이날을 내셔널 디시전 데이(National Decision Day)라고 부른다.

만약 이날까지 입학 의사를 전달하지 않게 되면 대학은 이 합격자가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이를 근거로 신입생 정원 구성을 맞추기 위해 필요에 따라 대기자(waiting list)에 오른 후보들 가운데 일부를 추가 합격시킨다. 즉 추가 합격 기회는 5월 1일 이후에 알 수 있게 된다.

2. 합격자들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지원했던 대학들의 결과 발표가 나온 뒤 합격한 대학들이 보내 온 패키지를 차분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는 대학을 지원할 때 거쳤던 과정과 유사하다.

합격한 대학들의 위치와 환경, 자신의 전공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비 보조 내역을 살펴보면 어느 대학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을 해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학비 보조는 나중에 값을 필요 없는 장학금과 그랜트(grant) 액수,

융자, 근로(work study)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지원자 가정에서 최종 부담해야 할 액수가 나오게 된다. 또 여기에 더해 기숙사 및 식사 비용도 더해진다.

학비 보조는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지원자가 제공한 FAFSA를 기본으로 하는데, 사립대는 여기에 더해 이보다 더 상세한 가정의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CSS 프로파일 내용을 근거로 산출된다.

만약 드림스쿨이었는데 보조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학에 연락해 추가 보조를 요청해 볼 수 있다.

3. 어떻게 대학을 고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적응하고 4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대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간판과는 별개의 문제다.

지원자에 따라서는 지원 대학들마다 전공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해야 한다. 대학의 간판이나 명성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방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합격한 대학들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당연히 집안의 재정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격한 대학들 중 2-3 곳을 골라 다시 캠퍼스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사립대학들의 경우 합격자들을 초청해 대학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이는 지원서 제출 전후에 참여했던 캠퍼스 투어나 인포메이션 세션(information session)과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들은 합격자들의 등록을 높이기 위해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

주요 부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4. 드림스쿨 대기자

가장 원했던 대학으로부터 ‘대기자’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음을 뜻한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워낙 등록률이 높기 때문에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이 통보를 받게 되면 자신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드림스쿨이라면 일단 자신을 대기자로 올려줄 것을 대학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지원서 제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좋은 정보들, 예를 들면 GPA 나 표준 학력평가 시험 점수 향상, 수상 내용들이 있다면 이를 모아 대학에 보내주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드림스쿨 대기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았어도 5월 1일까지 다

른 합격한 대학들 중 한 곳을 골라 반드시 등록 의사를 전하는 것이다. 대기자 결과에만 집착하다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아예 대학 진학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만약 나중에 드림스쿨 대기자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 등록 의사를 전했던 대학에 상황을 설명하고 등록 의사를 취소한 뒤 드림스쿨 입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경우 등록 의사를 전달할 때 디파짓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5. 편입도 전략

자신이 원하는 대학들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학비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부모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나지 합격한 대학들이 내키지 않을 경우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즉 편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UC 또는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등과 같은 주립 대학들의 편입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리고 편입은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한 대학 학비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흐름은 대학원 진학이 일반화되고 있다.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됐다면 고교 카운슬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6. 합격 통보는 조건부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합격 통보가 모든 것의 종료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 대학은 언제든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남은 고교 생활을 게을리해 성적이 급락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대학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때문에 대학 문을 들어서는 순간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립 기자



레몬법 변호사비, 정말 공짜일까?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주제로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변호사비가 정말 공짜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해 변호사비가 공짜는 아니다. 고객이 내지 않을 뿐,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장애인 공익 소송(ADA)과 같이지는 쪽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법이 몇 가지 있다. 레몬법도 그중 하나다. 레몬법은 소송이나 클레임에서 고객이 이길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 변호사비가 걱정되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클레임하지 못하거나 소송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렇다면, 제조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할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회사가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보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제조사가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고객이 '차를 리턴하고 환불받는 경우' 다(자동차 입장에서 고객에 판차를 고객으로부터 다시 사기 때문에 'repurchase'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고객은 차의 '감가상각(mileage offset)' 을 제외하고 다 운페이나 페이먼트를 비롯해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는다. 이 돈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다. 대신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변호사비를 받는다. 간혹 고객들 가운데 본인이 돌려받는 돈에서 변호사가 일부 가져가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문제 있는 차를 계속 '유지(keep)' 하면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다. 이때는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포함해서(inclusive of attorney's fee)'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고객과 변호사가 보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변호사 비율은 대개 33~40%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고객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보상금이 있을 때만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셋째, 소송으로 진행되어 케이스가 해결될 경우, 변호사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케이스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객

이 받는 보상이 높고, 변호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변호사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레몬법 클레임이나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고객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들은 레몬법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례만 맡게 되며, 이는 레몬법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레몬법에 있어 고객은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에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레몬법으로 보상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문의: 213-700-3159

필자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 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Cover story 메디케어 2028년, 소셜연금 2035년 고갈

현재 젊은 근로자 가장 튼 타격 입을 듯

9면에서 계속

양당의 시각차

공화당과 민주당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차가 매우 크다.

대통령 후보 시절 바이든은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새 페이롤 텍스 상향을 공헌했다. 이 방법으로는 생명을 5년 더 연장하는데 그친다. 존 라슨 하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이 발의한 '소셜시큐리티 2100법'은 바이든의 과세기준 상향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금의 2% 일괄적 인상과 생활비 인상 반영률 COLA를 좀더 일반적으로 완화한 공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극빈 시니어들을 위한 새 최소 연금 인상과 사별 배우자 연금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케어기버 크레딧을

더 많이 주는 내용도 있다.

지난달 중순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연금 환산 방법을 바꿔 모든 수혜자들에게 월 200달러를 더 준다는 내용의 75 개년 계획안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FICA 세금을 25만달러까지 늘리고 투자 수입에 대한 2개의 새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플랜

릭 스타트 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과 롤 존슨 상원의원(공화, 위스콘신)은 의회의 미국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삭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했다. 스타트 상원의원은 논란이 심해지자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삭감 계획은 옳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원들에게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삭감은 안된다고 경고

했다. 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도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보수 '공화당 연구 위원회'는 FRA 를 70세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빈곤층 근로자를 제외한 전반적인 혜택 삭감과 함께 중산층과 부유층에 대한 연금의 대폭 삭감을 들고 나온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소셜 연금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복지 혜택으로 전환한다면서 은퇴 자금이 넉넉한 중산층 및 상류층 은퇴자들까지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

바이든은 대통령 유세 때 메디케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지난해 여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그는 당뇨병 치료 인슐린 가격 제한과 자기 부담금 인하 등 파트 D 프로그

램의 혜택을 강화했다. 또 치과와 안경, 보청기 혜택을 추가하려 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메디케어에서 가장 취약한 당면 과제가 파트 A 병원 보험이다. 이 '병원보험 신탁기금'은 조만간 고갈 위험에 놓여 있다. 파트 A 신탁기금은 주로 2.9% FICA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파트 B와 파트 D는 정부 일반 예산과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된다.

이 파트 A 기금은 2028년 고갈된다. 이럴 경우 지불금의 90%만 커버된다.

기금 고갈의 근본 원인은 의료비 상승에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혜택 축소 또는 병원비 지불 삭감 등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지난 국정 연설에서 최소 20년은 더 버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백악관은 3월 9일 구체적인 예산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정치권의 방안은 FICA를 3.8%까지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순 투자 수입 세금을 신설해 파트 A 신탁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SSI 음식 공제 없앤다

1면에서 계속

이 금액은 SSI 신청자가 거처와 음식을 모두 스스로 조달할 경우 지불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음식 또는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현물 지원'으로 계산돼 현시제로 환산돼 금액이 깎여 지불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관보에서 "음식 지원은 기본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물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다"면서 "계산이 복잡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빈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현재 730만 명이 SSI를 받고 있는데 그중 79만 3,000명이 '현물 지원'으로 삭감된 기금을 받고 있다. 이번 제안은 4월 17일까지 최종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언제 시행에 들어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정섭 기자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US메트로뉴스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미래설계를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

- IRA
- 401(K) & Sep-IRA
- MYGA
- Immediate Annuity
- Indexed Annuity
- GUL/Indexed Life
- Defined Benefit
- Premium Financing
- Long Term Care/DI
- Life Settlement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한솔 노후연금 혜택 플랜

은행CD나 일반 MONEY MARKET 저축보다 월등한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소개합니다.

사망보험금 보장
INDEXED RATES의 은퇴저축
생전 혜택 보장 (LIVING BENEFIT)

OR

개인연금(IRA)
회사연금 (SEP IRA & 401K)
ROLL OVER & TAX 유예

OR

목돈저축플랜 (INDEXED ANNUITY)
SPIA플랜 (평생 INCOME)
LTC플랜 (300%혜택)

MYGA (다년간 연금보장플랜)

단기간 (3년~7년) 원금보장+보장이자 수익 혜택 플랜이며
최소 \$10,000부터 최고 \$2,500,000까지 적립한다.

만기	최소적립금	보장이자율	인출금
3년	\$10,000+	4.60%	\$11,444
	\$100,000+	5.00%	\$115,763
5년	\$10,000+	4.80%	\$12,642
	\$100,000+	5.30%	\$129,462
7년	\$20,000+	5.40%	\$28,901
	\$100,000+	5.40%	\$144,505

매달 이자만 인출도 가능

(1월 31일 기준)

지수형 (Indexed) 연금플랜

원금 보장은 물론 중기(7년)와 장기(10년)간
적립하여 지수형 수익금으로 노후 대책이 가능함.
종합주가 하락시에도 안정적이며, 상승시에도 MAX CAP
MAX Participation Rates, Index Option의
다양한 선택으로 높은 수익을 예상합니다.

7년 만기 지수 연금플랜 예상 수익률과 금액

	최고수익률	최저수익률	최근수익률
최소적립금 \$10,000+	232.55%	147.15%	185.52%
	\$33,255	\$24,715	\$28,552
최소적립금 \$100,000+	243.61%	153.90%	194.24%
	\$343,611	\$253,900	\$294,235

(1월 31일 기준)



생명/은퇴연금/Medicare/LTC
한솔종합보험(주)
CA License#0E52100 Since 1977

대표 전화
(213) 487-4900 / (800) 300-0703
LA 지점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OC 지점 6301 Beach Blvd. #304, Buena Park 90621



윌리엄 황

봄을 알리는 3월의 특이한 기념일들



김연신의
천 냥 빚을 갚아주는
영어 한마디

어느 시인은 겨울 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 어차피 3월은 오고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에서 원래 한 해의 시작은 3월 March부터였고 나중에 달력이 생기며 1월과 2월이 추가됐다. 전쟁의 신 마르스(Mars)가 March의 어원이다. 겨울에 쉬던 전쟁을 봄이 되면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이 재개되는 3월을 전쟁의 신에서 이름을 따서 March라고 불렀다니 봄의 낭만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사람들은 특이한 기념일 만들기를 매우 좋아한다. 마케팅이나 재미 삼아 정한다. 미국에서 3월 1일은 피넛버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날이다. National Peanut Butter Lover's Day. 3.1 운동보다 19년이나 앞선 1900년에 제정됐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엄혹한 시절에 미국 사람들은 피넛버터 기념일을 챙길 여유가 있었구나 싶어 뭔가 씩씩할 기분이다.

3월 2일은 Dr. Seuss Day다. The Cat In The Hat 등 유명한 동화책 작가 Dr. Seuss를 생일에 맞춰 기념하는 날이다. 최근까지도 이날을 기념하는 초등학교들이 많았다. 하

지만 작가의 일부 작품에 아시아인과 아랍인, 흑인을 비하하는 그림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기념하는 학교들이 급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70여 년 전에 쓰인 동화책을 현재의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woke" 문화이고 "cancel culture"라고 반발했지만 작가가 1920년대에 유대인을 희화하고 적대시하는 만화를 그린 것이 드러나자 지난 2021년 작가의 후손들과 출판사가 인종 비하 그림이 들어간 6개의 책을 절판한다고 밝혔다.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다. 20세기 초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던 사회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기념일이다. 올해는 #Embrace-Equity 캠페인을 한다.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quality와 equity의 차이가 구별된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기계적인 equality-평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원과 기회를 배분하고 평등한 결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는 equity-공평으로 변해야 한다는 논이다.

3월 12일은 귀찮은 봄의 전령사 일광절약 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새벽 2시를 기해 한 시간 앞으로 간다. Spring Forward, Fall Back. 봄에는 한 시간을 앞으로 가고 가을에는 뒤로 간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귀찮게 여겨 매년 바꾸자는 논의가 있지만 연방법에

해당하고 주마다 의견이 달라 매년 헛수고다. 일광절약제를 처음 착안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올해 일광절약제는 11월 5일에 끝난다.

한국에서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지만 미국에서는 파이데이(Pi Day)로 유명하다. 3.14=π = pie. pie를 먹는 날이고 학교에서는 π와 관련된 수학 문제를 푼다. as easy as pie는 아주 쉽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파이를 만들어보면 쉽지는 않지만 먹기는 아주 쉽다. eat humble pie는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중세 때 하층민들이 먹던 고기 파이를 umble pie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흘러 변형돼 이 표현이 생겼다. pie in the sky는 그림의 떡과 비슷한 표현으로 헛된 공상,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뜻이다.

3월 17일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St Patrick's Day다. 줄여서 St Paddy's Day라고도 한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 패트릭의 사망일을 기념하는 날로 보스턴, 시카고, 뉴욕 등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기념일이다. 초록색 옷과 장식으로 꾸미고 퍼레이드를 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시카고 리버를 푸르게 물들이는 행사도 유명하다.

세잎 클로버 shamrocks이 대표적인 상징물인데 기독교의 삼위일체 trinity를 상징한다. 아일랜드 요정 레프리카인 Leprechauns는 키가 60센티 정도고 빨간 수염에 초록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 요정이다. 무지개

끝에 황금이 든 항아리(pots of gold at the end of rainbow)를 숨겨두는 장본인이고 만나면 3개의 소원을 들어준다. 학교에서는 교실을 어지럽히는 장난을 하고 아이들은 Leprechauns를 잡는 트랩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날 "Kiss me, I'm Irish"라는 문장도 많이 보이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바위 블라니 스톤 Blarney Stone에 키스를 하면 행운(혹은 달변가가 된다)이 오지만 거기 갈 수는 없으니 대신 아일랜드 사람에게 뽀뽀를 하라는 장난 섞인 인사말이다. 근데 그 바위는 세균이 득실거리고 누군가 바위에 소변을 본다는 소문도 있다.

북반구의 봄이 시작되는 춘분 spring equinox는 3월 20일이다. 봄 대청소는 spring cleaning, 마음에 괜히 봄바람이 부는 것은 spring fever다. 올해 이슬람 라마단은 3월 22일에 시작된다. 30일간 낮에는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 라마단 인사를 하고 싶다면 "Ramadan Kareem"(Have a generous Ramadan) 또는 "Ramadan Mubarak"(Blessed Ramadan)이 적절하다.

김연신
UCLA 정치학 전공 TESOL 부전공 / 라디오 코리아. 미주 한국일보 기자 / 영어 관련 블로그, 소셜미디어 그룹 운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les0803>

뻥한 기사
한번 보고
버려지는
신문기사

US메트로뉴스
오래 두고두고
보셔도 됩니다

11살 다슬이의 그림 일기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 (Dancing in the rain)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오는 날의 아름다움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비오는 날이 얼마나 멋진 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s about learning how to dance in the rain)"

아이패드로 그린 이 그림은 내가 좋아하는 이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춤을 추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비가 올 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꽃이 어떻게 피는지, 그리고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지를요. 그래서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도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의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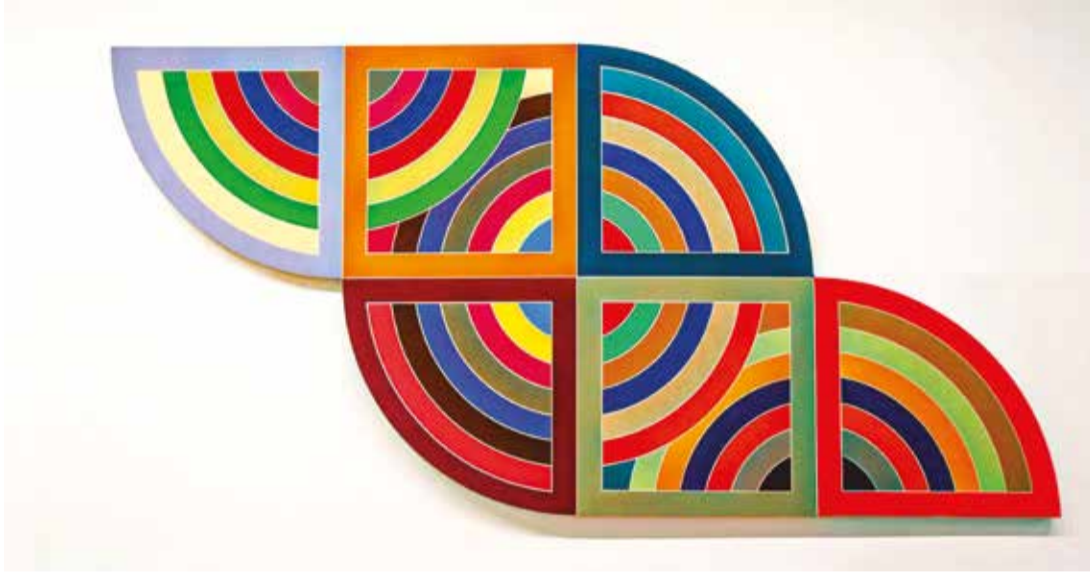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선과 곡선의 획기적인 예술세계



Harran II



Kastura

Frank Stella

화려함과 모던한 멀티미디어 작품 인상적
현존하는 미니멀리즘과 추상화 작가
86세 고령이지만 열정으로 변화 발전하는 예술가



프랭크 스텔라

몇해 전 인가 뉴욕의 위트니 미술관 (Whitney Museum)을 방문 했을 때 프랭크 스텔라의 특별 전시회를 볼 기회가 있었다. 초기 작품들을 비롯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분량의 작품들 중에 멀티 미디어를 이용한 작품들은 화려함과 동시에 모던한 현대 미술로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는 미국의 화가이자 조각가, 판화 제작자로 미니멀리즘과 추상화의 작업으로 현존하는 작가이며, 미니멀리스트 미술운동을 주도한 주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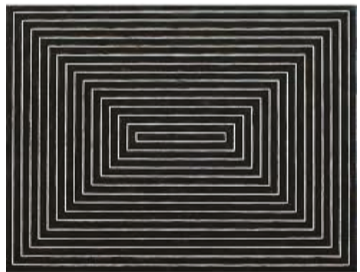
미술사조의 미니멀리즘이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한 추상미술의 극단적인 형태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대표된다. 초기에 그가 추구했던 미니멀리즘이란 미학적으로 고도의 정제된 형태의 아름다움을 의미 하며,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진실과 질서, 단순성 및 조화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잭슨 폴록의 제스처, 추상 표현주의의 실존적 고뇌를 완전히 뒤집은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모노크로믹적인 검은색 줄무늬 그림 시리즈는

그가 미니멀리스트임을 보여 준다. <핀스트라이프 페인팅> 시리즈로 불리우는 기하학적인 줄무늬 패턴의 작품들은 스텔라가 매스킹테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완벽한 직선에서 미묘하게 벗어나 자유자재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6년 메세추세스주 출생과 그곳에서 성장을 한 스텔라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림을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 한다. 뉴욕 아트 갤러리를 일찍 방문한 것이 그의 예술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으로 옮겨, 23세의 이른 나이에 스텔라는 첫 데뷔 전시회를 열게 된다. 그의 통제되고 논리적인 미니멀리즘의 작품들은 미술계에서 혁신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1960년대 초반 까지 엄격한 스타일의 작품은 계속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을 실험하게 되는데 그가 추구해 온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난 추상 표현주의 브랜드로의 전환이었다.

스텔라는 수년에 걸쳐 더욱 복잡하고 화려해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게 된다. 기하학적 형태와 단순한 선에서 밝고 생생한 색



Black painting

상, 더욱 유연해진 곡선 형태 및 3D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그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예술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스텔라의 작업은 거침이 없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그의 작업 과정은 특별한 규율(rule)이나 법칙이 없다. 처음에 집과 보트를 페인팅하기 시작한 스텔라는 대형 벽화에도 도전하고, 캔버스에도 혁명을 일으킨다. 알루미늄 페인팅, 카퍼 페인팅, 불규칙한 다각형의 캔버스를 포함 최초로 별 모양의 캔버스에도 작품을 제작한다.

그후 10년 동안 스텔라는 조각적 특성 때문에 그의 접근 방식(최대주의 Maximalism)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예술에 부조 형식도 입하게 되는 이른바 평면에서 입체적인 작품으로의 전환이 된다. 조각 형식의 그림 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위트니미술관 전시전경

혼합된 다중성 작품을 대하면 복잡한 듯 하면서도 내러티브한 감상적인 의미가 그의 추상작품 속에 숨어 있음을 보게 된다.

뉴욕의 MOMA를 비롯한 미 전역의 미술관에서 스텔라의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센터 앞에 세워진 대형 조각물은 1996년 스텔라가 직접 현장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 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스테인레스 조각물은 한때 흉물로 논란이 되었지만, 현재는 명품 공공미술로 자리잡은 100억 가치의 자산으로 추정된다.

스텔라는 현재 86세의 고령이지만 현역 작가다. 지금도 뉴욕에 거주하면서 작품을 하고 있으며, 유명 평론가가 된 아내 바바라(Barbara Rose)와 함께 미술가들을 위한 권익신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꽃이 피는 구조물

프랭크 스텔라는 '진화하는 종합 아티스트'이다. 꾸준한 그의 호기심과 노력,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그를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는 예술가로서 이끌며, 그런 이유가 그를 미술천재로 만든 것 같다. 그가 평소 하던 유명한 일화가 생각난다. "What you see is what you see"

글 이경수



작품에 찍는 도장이지만 또 다른 예술적 장르

김영훈 전

리앤리 갤러리 개관 20주년 3번째 기획전
 치과 의사 출신으로 서예와 전각 작품 활동
 3월 18일 리셉션~4월 8일까지 전시

김영훈 전각 전시회가 3월 18일 부터 4월 8일 까지 리앤리 갤러리(이아그네스)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3번째 기획 전시회로 열린다.

치과 의사 출신의 김영훈 작가는 남가주에서 오랜시간 서예와 전각에 애정을 갖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전각은 서화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에 전서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 나무와 돌, 금속 등에 안장을 새기는 일이며, 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서예나 그림 등의 작품에 자신의 호나 이름을 안장으로 새겨 날인 하는 것으로 주로 전서체로 새기기 때문에 전각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전통 서예 뿐만 아니라 캘리그래프 작품에도 전각 도장을

많이 찍으며, 서체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김영훈 작가는 그의 모든 작업의 시작을 동양의 고전에서부터 한국의 현대사에 이르는 모든 책 안에서 모티브를 찾는다.

책 속에 숨겨있는 주옥같은 문구에서 받은 빛나는 영감을 작품화 하기 위해 그에 어울리는 전각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고, 서체를 결정하며 디자인을 완성한다. 선택된 각으로 작품이 진행된 각이 완성되면 인주 화선지 위에 올려 비로서 작품으로 탄생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12지신과 12지지의 테마로, 12동물 모양의 그림과 글씨를 전각으로 완성된 작품

들이 전시 된다. “차츰 도장에 관심이 있고 컬렉션을 하는 애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각은 작품에 찍는 도장의 의미도 있지만 예술적 작품으로도 또 다른 장르가 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최근 전각 작품을 컴퓨터와 접목시켜 제작된 디지털 영상물은 TV 모니터를 통하여 전시 중에 볼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전각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 된다”고 이아그네스 관장은 전시회의 의욕을 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작가가 작품 제작에 쓰였던 재료와 도구를 진열하는 코너도 마련 되며, 도장 그 자체로의 작품과 인쇄하여 제작된 프린트, 그리고 TV모니터를 통하여 보는 새로운 시도는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의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리셉션: 3월 18일(토) 2~5시
- ▶장소: 3130 Wilshire Blve. #502 Los Angeles, Ca 90010
- ▶전시기간: 3월 18일~4월 8일
- ▶문의: 이아그네스 (213)365-8285

글 이경수



3월 추천 詩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1949~)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감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른다.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는 노래. 그런 희망가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읊어본다. 시인은 말한다. 나는 혼자 있지만 사실 혼자는 아니다.

나의 희망과 너의 희망이 모여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만나면 온 산이 타오를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 꽃밭을 함께 만들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오레노 드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추천작가

이정아(본명 임정아)

- 서울 경기여자 중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
- 1985년 미국 이민
- 1997년 한국 수필 등단
-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심사위원(2008~2012)
- 재미수필문학가 협회장 및 이사장(2009~2012)
- 현 국제펜한국본부 미서부 지역회 부회장(2021~)



이정아의

이달의 수필

떠나야 보이는 것들

아침저녁으로 혈압약,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에 각종 비타민 등 한 움큼씩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며 식사가 좋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장기 이식 환자는 평생 먹어야 하는 약들이므로 내 식욕에 감사한다. 뭐든 잘 먹으니 약 먹는 건 일도 아니지 뭐냐.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은 가야 하는 병원 출입. 이것도 감사하다. 투석할 땐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죽음의 문턱까지 왕래하다 곤죽이 되어오곤 했는데 한 달 두 번은 가볍지 않은가? 잠시 따끔한 피검사를 견디고 닥터의 조언을 착한 학생처럼 들으면 되니 예전에 비하면 마음 편한 병원 출입이다.

병원에 일찍 가서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많은 동지를 만난다. 투석 중인 이들을 보면서 예전 고통을 추억하면 마음이 짠해진다. 이식수술 대기자들에게선 선협자인 내가 관심 대상이어서 질문들이 많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하여 전전긍긍이다. 수술 전후의 주의할 점, 식생활과 운동 등 환자의 섭생에 대한 조언을 하며 속으로 놀란다. 무척이나 안 지켜서 주치의와 남편을 실망시킨 주제에 남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들의 불안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자꾸 떠들게 된다. 오래전 학교 선생을 했던 버릇이 드러난다.

병원 다녀오는 길엔 나도 모르게 착해진다. 만나는 이들에게 관대하게 된다. 누가 좀 무례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남모를 아픔이 있겠지 한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차를 만나도, 저 사람도 가족 중 환자가 있을지 몰라 하며 너그러워진다. 연

대감 같은 게 생겨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든 말은 진리에 가깝다. 크게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므로.

환자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든 기대게 된다.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게 된다. 혈관 잘 보이게 주먹 폼다 쥐었다 열 번만 하세요 하면 횡수 맞춰 쥐락펴락하고, 아프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면 아파도 참고, 이제 다 끝났어요 하면 휴우 안도하고 미소 짓게 된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와 인사하고 나오면 맑은 하늘이 참 좋다. 다음 검진까지 또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가벼운 마음이 된다. 나는 약 솜처럼 포근하고 하얘진다.

집에 와서 환자 돌보느라 지친 남편에게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늘 보채다가도 이날만큼은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굽고 굴전도 부친다. 한 시간 부엌에서 서성거리면 체력이 바닥나, 두 시간은 누워 쉬 후에나 밥상을 마주할 기력이 될망정 잠시 유순한 마누라가 되어보는 것이다.

사랑이 떠나면 사랑이 보인다. 부모가 떠나면 부모가 보인다. 소중한 것들은 떠나면 그 소중함이 보인다. 건강을 잃으면 뒤늦게 알게 된다.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것인지.

병원 다녀온 날엔 모든 생명이 귀하고 감사하다. 살아 있다는 게 행복하다. 목숨 지키려면 잘 먹고 운동 해야지 전의가 솟는다. 약한 나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병원 가는 날, 내 삶에 있는 그 장치가 감사하다. 완벽하지 않고 결핍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질 않던가. 골골 100년 계속 가보자.

2024년 자산 한계 없어져... 세부 사항 곧 발표

메디칼 면제 재산

5면에 계속

직장과 관련 없는 어뉴이티(annuity) 연금보험

▶1993년 8월 11일 이전에 구입한 연금보험: 이자와 원금을 합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3년 8월 11~1996년 3월 1일 구입한 연금보험: 연방법이 바뀐 1993년과 캘리포니아 주법이 바뀐 3월 1일 사이에 구입한 연금보험이 재조정되지 않았다면 이전 규정에 따른다. 이럴 경우 어뉴이티 발행 보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에어전트가 어뉴이티가 재 조정될 수 없다는 증명을 해 줘야 한다.

▶1996년 3월 1일 이후 메디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구입한 연금보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와 원금이 포함된 정기 페이먼트를 받아야 하며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끝나기 이전까지 어뉴이티 구좌 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페이먼트 스케줄이 짜여 있어야 한다. 기대 수명치를 초과해도 지불되도록 계약된 어뉴이티가 있다면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장기 간병 메디칼이 거부되거나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이후 구입된 연금 보험은 메디칼 수혜자가 죽으면 재산 환수 대상이 된다.

현금 보유

체크, 세이빙,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과 같은 유동 자산은 13만 달러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재산 허용(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CSRA)

집에서 거주하는 배우자는 집과 IRA와 은퇴 기금과 같은 기타 면제 재산을 제외한 유동 자산을 13만 7,400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상의 기금이나 비 면제 재산은 메디칼 자격 심사때 재산으로 계산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삶의 질 수직 상승 아이템

스타일러·에어프라이어·AI홈 시스템 등

인류가 산업혁명을 몇 차례 이뤄내면서,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음성을 인식해 집안의 소등 점등은 물론, 오늘의 날씨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집안의 비서 역할을 해 주는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를 이용한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이미 우리 삶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출 후 간단하게 걸옷을 살균 소독시켜주는 스타일러(에어 드레서), 레프트 오버 음식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에어프라이어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혁신제품들이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 시켜주는 고마운 아이템들을 모아봤다.

스타일러

스타일러는 에어 드레서 혹은 의류 관리기라고도 불린다. 기본적으로는 의류의 먼지와 구김을 털어주는 기계였으나 최근에는 살균, 탈취, 제습 및 건조 기능까지 갖춘 만능템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모피나 밉크, 패딩 등 기존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의류 제품에 사용하기 좋다. 특히 매일 외출 후 간단하게 사용하면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

에어 프라이어는 말 그대로 화씨 150~400도의 뜨거운 공기의 회전(바람)을 이용해 튀김 요리를 만들어내는 조리기이다. 스타일러가 옷장 안의 '인싸템' 이라면 에어프라이어는 부엌의 혁명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엌의 '인싸템' 이다. 전통적인 방법의 '딥프라이드'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의 기름으로 돈가스나 튀김만두 등의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죄의식(?) 없이 튀김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냉장고 속 먹다 남은 프라이드치킨이나 피자, 탕수육 등 요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점. 공기의 강한 회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오븐과는 차별화된 바삭함을 선사해 새로 만든 요리만큼 맛있는 레프트오버 음식을 즐길 수 있다.

AI 스마트 어시스턴트

"안녕 구글, 부엌에 불을 켜줘."

"알렉사, 오늘 날씨는 어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은 AI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집안의 소등 점등 같은 집안의 자잘한 심부름을 해 주고 그날의 날씨와 뉴스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해 전해주는 편리한 존재다. 스마트 TV 등에 연결하면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화면에 송출하도록 말로 지시할 수 있으며, 핸드폰과 연결하면 집안 내 불을 키거나 끄는 등 시스템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온수와 냉수는 물론 다양한 모양의 얼음까지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쿠쿠 홈시스 정수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를 이용한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이미 우리 삶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은 구글 홈.

다양한 가정용 전기제품

이 밖에도 온수와 냉수는 물론 다양한 모양의 얼음까지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정수기, 주부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는 로봇 청소기, 냉장고 속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핸드폰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냉장고 등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서/홍지은기자

홍(서)지은 기자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 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 / 현 공인 회계사·슈퍼맘 / 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스타일러는 기본적으로는 의류의 먼지와 구김을 털어주는 기계였으나 최근에는 살균, 탈취, 제습 및 건조 기능까지 갖춘 만능템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부엌의 인싸템인 에어프라이어. 전통적인 방법의 '딥프라이드'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의 기름으로 돈가스나 튀김만두 등의 요리가 가능하다.

“메디칼 반드시 갱신해야 혜택 유지”



재가입하지 않으면 끊겨 주의해야 우편물 확인하고 서류 제때 접수

팬데믹 비상사태(COVID Emergency Declarations)가 종료되면서 공중보건 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PHE) 지원이 빠르면 3월부터 중단돼 저소득층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연방 및 캘리포니아 보건당

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메디칼 수혜 자격과 갱신규정을 완화(continuous coverage protections)했다. 코로나19 부양책(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CAA)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칼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칼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칼 신청자격보다 많으면 메디칼도 중단된다. 메디칼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갱신이 필요한 가

입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동봉된 갱신서류를 작성해 반드시 60일 안에 보내야 한다.

이웃케어는 “앞으로 몇 개월 간은 메디칼에서 오는 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답해야 한다”며 “본인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메디칼 관련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본인 담당 소셜워커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 갱신 시기는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는 보통 마감일 2~3개월 전 우편으로 발송되며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또 그동

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칼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소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메디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다른 혜택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이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 문자 문의: (213)632-5521, 이메일 INFO@LAKHEIR.ORG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

한국 문화를 상자 박물관서 한눈에 감상



한국문화원, 3월 24일까지 움직이는 박물관 공개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2월 23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에서 제작한 움직이는 박물관 ‘한국문화상자’ 전시를 일반에 공개한다.

한국문화상자는 전시 및 체험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움직이는 박물관이며 사랑방, 안방, 한복, 안

녕 등 4개의 주제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방과 안방 상자는 선비문화와 규방문화를 각각 보여주는 격조 있는 전시상자이다. ▲사랑방 상자 속의 책가도 병풍, 서안과 문방사우 등의 실물자료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안방 상자에서는 여성들의 바느질 도구와 아름다운 자수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복 상자는 다양한 한복과 쓰개류를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 상자이다. ▲안녕 상자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지리 등을 알아 보며, 영상을 통해 한국의 현대 모습을 보기도 하고, 놀이하듯이 간단한 한글을 익힐 수도 있다. 한국문화상자에는 한복은



물론 서안, 정자관, 노리개 등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실물자료 87건 152점이 담겨 있다.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은 “한국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사회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만나보고, 조선시대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을 한 눈에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K-POP 등 한국 대중문화

를 좋아하거나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까지 즐길 수 있는 신한류 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문의: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

▶ 주소: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전시담당 태미 조

PECHANGA RESORT CASINO

4월 15일, 토요일 • 6PM

윤도현 밴드 콘서트 YB CONCERT

티켓 가격 \$80부터 시작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티켓 구매 연락처: 714.232.0000 또는 온라인 KoreanConcert.net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7.715.2WIN • PECHANGA.COM



YB 윤도현 밴드 폐창가 공연

4월 15일 오후6시 ‘폐창가 서밋’

대한민국 대표 록 밴드 YB가 오는 4월 15일(토) 오후 6시 폐창가리조트 카지노의 최신 대형 공연장인 ‘폐창가 서밋’에서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연다.

97년 윤도현 밴드라는 이름으로 결성했다 2005년 이름을 변경한 YB는 무려 26년간 꾸준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밴드다.

99년 발표한 ‘너를 보내고’를 비롯해 ‘사랑할거야’ ‘잊을게’ ‘나는 나비’ ‘타잔’, 윤도현의 솔로곡 ‘가을 우체국 앞에서’ ‘사랑’ ‘사랑했나봐’ 등의 히트곡이 있으며 대표적인 히트곡은 ‘오픈승 코리아’. 2002년 전 국민이 매일같이 함께 불렀던 이 월드컵 응원가는 현재도 대국민 응원가로 불리고 있다.

티켓 가격은 80달러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정보는 폐창가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폐창가제공

재미 한국노인회

한국 벚꽃 구경 및 안보 투어 모집

재미 한국노인회(회장 박건우)는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미서부 지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국 벚꽃 구경 및 안보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화)~4월 16일(일) 5박 6일 일정이며 비용은 1,625.00(팁은 별도)와 항공료다. 관문점 견학, 백령도 제6해병여단 방문, 전주 민속마을, 순천만 습지, 사천 항공우주 박물관 및 기타 시설, 광양 제철소, 진해 해군사관학교, 거제 포로수용소, 부산 UN기념공원등을 방문하며 해병 제6여단장 만찬, 전북도지사 만찬, 전남도지사 만찬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만찬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국 교통편은 중앙고속이 담당하며 최고수준의 5성급 호텔에 머문다고 노인회는 밝혔다.

▶ 연락처: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 위재국 (323)459-0624, 재미 한국노인회 회장 박건우 (213)500-5479



이번 겨울 폭우로 불어난 개울물.

칼칼 흐르는 개울물, 40피트 폭포의 우렁찬 낙하

City Hiking

도심의 예쁜 폭포에서 한나절 Eaton Canyon Falls Trail

멀리 나가지 않고 도시 인근에서 즐기는 City Hiking. 이번에는 시원한 폭포 하이킹을 소개한다.

이튼캐년 폭포 트레일은 LA외곽 동북쪽 알타디나, 패사디나 지역에 자리잡은 인기있는 하이킹 코스로서 연중 어느때나 찾아 갈 수 있다. 도시와 접하고 있지만 산 속의 한적함과 함께 겨울철 우기에는 칼칼 흐르는 개울물과 40 feet 높이 폭포의 우렁찬 낙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트레일로 향하는 주차장은 패사디나의 이튼 캐년 내이처 센터에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 계절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 문을 닫고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는데 계절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가면 좋다.

주차를 하고 네이처 센터 로 들어서면 아담한 네이처 트레일을 한바퀴 돌아 볼수 있다. 다과를 즐길수 있는 테이블도 여러 자리 마련돼 있다. 네이처 센터를 지나 개울을 건너면 왼쪽을 향해 트레일이 시작된다.

올해 겨울에는 비도 많이 와서 들꽃들이 트레일 곳곳에 무리져 피어 있다.

약 0.6마일 지점에 오른쪽으로 헤닝거 플래트(Henninger Flat)로 오르는 트레일이 나오지만 계속 직진을 한다. 1.2마일 지점에 사람이 다

너지 않는 다리가 나오고 이 밑을 지나 개울길을 올라가며 폭포로 향한다. 이번 겨울 비가 많이 온 주간에는 개울물이 넘쳐나며 소리치며 흘러갔다.

개울을 타고 올라가면서 간혹 바위길을 지나가므로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 꼭 착용하는 것이 좋다. 등에 땀이 축축히 잘 무렵에 앞 옆으로 병풍같은 암벽으로 둘러친 곳이 나타나며 그 한가운데를 시원한 물줄기가 물보라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폭포수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한시름 놓고 쉬며, 기념사진을 찍고, 사람 구경도 한 후에 돌아내려온다.

네이처 센터의 피크닉 테이블에서 음료를 나누며 트레일 마무리를 한다.

이튼 캐년 폭포 트레일은 남가주 주민들이 많이 찾는 하이킹, 휴식처로 가급적 오픈시간에 맞추어 일찍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남가주 산악회 김인종



이튼 캐년 폭포,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풍부하다.



폭포로 가는 트레일은 평탄하고 탁 트인 경관이다.

거리 왕복 3.8마일
난이도 쉬움에서 보통
소요시간 2시간

주차
Eaton Canyon Nature Center
1750 N Altadena Dr. Pasadena
Ca 91107



주차장의 트레일 입구에 있는 안내판

“3월에는 대장암 검사 하세요”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
수석 코디네이터

3월은 대장암 인식의 달(Colorectal Cancer Awareness Month)이다.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하는 10월 곳곳에서 분홍색 리본을 만날 수 있다면 3월에는 파란 리본이다. 대장암 연합(Colorectal Cancer Alliance) 등의관련 단체들은 3월 한 달 동안 파란 리본을 내걸고 대대적인 인식 개선 행사를 펼친다.

이처럼 관련 기관들이 대장암 검사와 조기발견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장암은 일찍 발견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암이기 때문이다. 미국암협회(A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대장암 환자는 두번째로 많았다. 1위는 폐암이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5년 생존률이 91%,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엔 5년 생존률이 14%로 떨어진다. 정기검사를 통해 암을 일찍 발견하면 10명 중 9명이 5년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10명 중 9명이 5년 이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다.

게다가 대장암은 검사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대장암 검사의 가장 일반적이고 권고되는 검사법은 대장내시경이다. 내시경을 통해 대장을 직접 관찰하는 검사



대장암 검사 체크 리스트

자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예	아니오
1. 45세 이상 74세 미만입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10년 이상 되었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분변잠혈검사를 받은지 1년 이상 되었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변을 보기 힘들거나 변 보는 횟수가 달라지는 등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혈변 (선홍색이나 검붉은색) 또는 끈적한 점액변 증상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예전보다 변이 가늘어졌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설사, 변비 또는 배변 후 변이 남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복통이나 복부 팽만 등 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체중이나 근력이 감소하고 피곤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번은 대장암 정기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부터 3번에 모두 “예” 라고 답했다면 대장암 검사를 위해 주치의 상담을 하십시오.

※4~10번은 대장암 증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때는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법으로 정확한 검사법이고, 필요한 경우 검사 과정에서 용종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검사 준비 과정이 힘들고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단점이다.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는 분변잠혈검사가 있다. 대장에 암이 있는 경우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대변검사를 통해 혈흔 검출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대장내시경에 비해 검사 방법이 쉽고 비용도 저렴하다. 대장내시경은 첫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매 10년마

다, 분변잠혈검사는 매 1년마다 검사하길 권고한다.

얼마전 암 예방교육에서 만난 중년의 한인 남성은 교육을 통해 분변잠혈검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대장내시경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 비용을 생각할 때 선택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분변잠혈검사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빠른 시일내 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분변잠혈검사가 얼마나 정확하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전문가들은 민감도와 정확도가 70~90% 가량은

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암 예방교육을 받은 분들이 협력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두 분이 대장암을 조기에 찾아내기도 했다. 일찍 발견한 덕분에 현재는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계시다.

다시 말하지만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검사 방법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45세가 넘었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대장암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올해 3월에는 꼭 대장암 검사를 받길 강력히 권한다.

45~74세 무료 대장암 검사

무보험 저소득층, 예약 필수

한인타운에 있는 고려보건소에서 3월 대장암 예방의 달을 맞아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변잠혈검사(FIT Kit)를 제공한다.

45~74세의 한인 중 과거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적이 없거나 1년 이내 분변잠혈검사를 한 적이 없는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대상이다.

분변잠혈검사는 대장암 선별검사 방법 중 한가지로 대변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이 있는지 찾아내는 검사 방법이다. 대변에서 미세한 혈흔이 있다는 이상 소견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검사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고려보건소(2655 W. Olympic Blvd., Ste. 101, Los Angeles, CA 90006)를 방문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자상담·예약: 213-267-4811



김동희

현재 미국병원 암센터 커뮤니티 아웃리치팀 수석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 '미국엄마의 힘' 저자. 연락처: (213)545-1014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24)

Lynch syndrome: 린치증후군

대장암 또는 다른 특정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유전질환.

Crohn's disease: 크론병

소화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대장암 발병위험을 높임.

Tenesmus : 테네스무스

배설후에 남는 불쾌한 통증으로 후중기라고도 함.

Anemia: 빈혈(아네미아)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로 대장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cbb-bank.com

2023 CBB와 함께하는 세번째 세이빙 플랜

세금은 똑똑하게 줄이고, 은퇴 준비는 든든하게!



3월 한정  프로모션

CBB IRA CD 4.30% APY*

- ✓ 낮은 최소 계좌 개설 금액: \$1,000
- ✓ 12개월 CD 스페셜 이자율
- ✓ 신규자금에 한함
- ✓ 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사전 공지 없이 종료될 수 있음)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Fullerton
(657)234-3000
604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Irvine
(949)608-4200
14370 Culver Dr., #2A
Irvine, CA 92604

LA Downtown
(213)808-5000
1001 Towne Ave., Suite 201
Los Angeles, CA 90021

Olympic
(213)377-3000
3121 W. Olympic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South Bay
(310)504-3000
377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Wilshire
(323)900-0099
3435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0

*연간 수익률 (Annual Percentage Yield) 4.30%는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본 IRA CD 프로모션은 2023년 3월 31일에 종료되며, 신규 자금 (현재 CBB Bank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돈으로 정의)으로 개설한 계좌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계좌 개설 금액은 \$1,000이며, 이자율은 분기 복리로 계산되며 발생된 이자도 분기별로 입금됩니다. 본 계좌는 만기 시 동일한 예금 기간으로 자동 갱신되고, 만기일에 유효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 만기전 인출 시 1개월치 단리 이자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해지 시 \$2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계좌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좌 이용 약관 및 수수료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가까운 CBB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S메트로뉴스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